



서울大同憲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5년 12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 월간 | 제333호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棟 | 편집주간: 鄭 晳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서울 미포구 도파동 18-2
전화: 702-2233 | 팩스: 703-0766 | AFS: 069-604-0011
홈페이지: www.snu.ac.kr

乙酉年... 30만 동문 힘모아 大役事 이뤘다!

〈파노라마로 비춰 본 2005년〉



모교 패교본 관련 단행본



장학발달 건립기금으로 15억원 출연한 申明奎동문(右) 조감도



관악출추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의 문턱에서 한 여인이 수줍게 보여 준 결단이 주위 사람들에게 후후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장학기금으로 15억원의 출연을 선포한 申明奎 동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申明奎(생물교육54졸)여사의 말 한마디가 또 한번 신선한 충격과 깨달음을 던져 주었기 때문이다.

부친 申奎鎭(경성제대26·29)교수와 남편 朴鎭鎭(화학교 육47·51)교수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申여사는 “사랑하는 아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끝내 이루 말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안타까웠다”는 고백이다. 특히 평생 후학 양성에 헌신하면서 사범대학동창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동창회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과 열의를 보였던 남편이 유언 한마디를 남기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바로 “제 정신일 때 기부할 것은 기부 해야죠”라는 소박한 결심이었다는 것이다.

“제 정신일 때 기부해야죠!”

그래서 자신은 의식이 또렷할 때 남편의 뜻에 부합되는 보람된 곳에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장학발달을 건립해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기뻐서 몰랐다고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더욱이 자신의 전 재산 대부분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도 오히려 이런 보람된 기회를 마련해 준 동창회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申여사의 발언에 주위가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다.

재산을 둘러싸고 대기업 총수 형제들조차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세상에 한 지성인이 보여준 이 소박한 기부행위야말로 서울대 동문 모두의 귀감이자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다시다언했다면 2005년을 마감하면서 모교에 불어닥친 갖가지 역풍을 막으며 어느 해보다 역동적으로 달려온 총동창회에 기대를 걸어 본다. 申여사가 다시 한번 일깨워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물결이 동문 사이에 꾸준히 그리고 힘차게 퍼져 나가, 새해에는 동문들의 꿈이자 비전인 장학발달이 서울 한 복판에 우뚝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리라! (圭)



(1월) 乙酉年 신년교례회



(3월) 정기총회 겸 제7회 관악대상 시상



(5월) 재미 워싱턴DC·뉴욕지부 순방



(6월) 제2회 동문 바둑대회



(8월) 2학기 장학금 수여



(9월) 제1회 동문 골프대회



(10월) 홈커밍데이 겸 동산대회



(10월) 중국 북경·천진·상해지부 순방

2006년 丙戌年 신년 교례회

새해를 준비하는 신년 교례회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06년 1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서울 소공동)
- 회 비 : 없음 • 문 외 : 02)702-2233
- 출 연 : 베이스 비리튼 吳鉉明동문, 테너 安寧-동문, 피아노 鄭鎭宇동문

※ 한정된 좌석과 식사 준비관계로 사전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만든 사람 :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南, 李炯均, 南仲九, 金鎭鎭, 安炳燾, 丘月煥, 宋鎭赫, 金好俊,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元龍,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李元堂, 高永才, 姜天錫, 嚴基永, 朴時龍, 辛京民, 朴聖姬, 朴勝俊, 金鎭國 | 편집장 安興燮 | 편집부 기자 朴亨宰, 表智媛, 金南柱 | 광고부장 金千鶴



노리나무광장

우리 헌정에서 사사오입(四四五入)개헌한바처럼 해괴한 논리는 아바 없을 것이다.

1954년 11월 29일 당시의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은 사사오입의 수학적 이론을 기묘하게 적용,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자유당이 李承晩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헌을 철폐했다는 것을 골자로 제출한 헌법개정안의 통과선은 재적의원 2백3명의 3분의 2인 1백36석이었으나 11월 27일 국회표결에서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 무효 1표를 얻어 1표차로 부결됐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를 후유 11월 29일 가결 정족수의 정확한 수치는 135, 333...이지만 자연인을 소수정 이하로 나눌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의 수학적 이론에 따라 가장 근치적 정족수 1백35명이 되는 것은 의실할 바 없다며 개헌인의 부결을 반박, 기결을 선포했다.

사사오입개헌은 절차상으로 정족수 미달이라는 점에서 우헌일 뿐 아니라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헌 철폐로 봉들의 위

직을 위배했다는 점에서 위험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국내 수학적의 최고 권위자들이 해괴한 논리로 사사오입개헌을 정당화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포처장 명의의 특별선명에서 당시 수학적의 거목 2명의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이들도 정부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후에도 유신체제와 5공화국 등 권위주의적 정부가 들어서며 때마다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해괴한 논리들을 제공하는데 적지 않은 학자들이 기여했다. 그런데 하나 기이한

것은 헌정시각 상할 권위자이러는 盧武鉉정부 들어서고, 그것도 시기적으로 대통령이 연정을 재개했다가 국민과 언론, 야당으로부터 외면당한 후 최후한 주장들이 정부와 코드가 갖는 학자출신 교수 공직자들 사이에 간단없이 나온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21세기에도 국민은 아직도 독재시대"라는 취지의 국민 모독성 발언이리든가, "부(富)의 양극과 심화는 불문이고 외환위기, 성수대교 붕괴까지 지역정치구도 탓"이라는 취지의 논리가 그것이다. 지역구도 때문에 한강의 다리(가) 무너지고, 경제가 IMF관리체제하에 들어갔고, 빈부격차가 심화됐다는 주장은 사회과학을 공부한 학자출신으로서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가 빚지도 모르는 과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사 지역구도와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는 소위 '인과적 순서(causal order)'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한반도 분단교착의 원인과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정기와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金日成의 불법남침 보다도 멀리 고종황제의 '정학상'은 물론 이상계, 왕건, 고구려를 거쳐 단군의 '질문'으로까지 돌아야 할 판이다.

학자적 양식과 해괴한 논리

徐玉植

경남대 국문대재연구수

초빙연구위원,

본보 논설위원



동문들부터 인권에 관심을...

우리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인권'이란 단어에서 심각한 이미지를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권에 관한 예제가 나오면 권위주의 시대의 어둠과 쓰러졌던 과거사 또는 심심하게 신문을 읽을 당시에는 인권침해 사건을 찾아내곤 한다.

필자 또한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곤 살았다. 나는 1986년 이 나라를 떠날때까지만 해도 부친정에서 성교로 사건의 공소유지 단장변호사(소위 '특별경찰 1호')로서 1988년 3월부터 활동한 일이 있는데, 당시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자행한 잔인무도한 범죄행위를 가장하면서 고문을 없애는 것이말로 가장 시급한 인권적 과제로 여겼던 기억이 새롭다.

동서고금의 문명이 변해왔듯이 한국사회에도 일찍이 시대가 흘러가고 민주화가 찾아왔고, 그 결과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자리로 물러선 것일까? 아니 그보다는 인권의 영역이 사회전 부문을 포괄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듯하다.

사교의 폭을 조금이나 넓혀 보면 인권 개념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한발 더 가까워져 다가가온다. 이는 변호사도 전원이 있어야 한다는 차이는 따라 예언이 되기 전에 은 회고고 회고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서 시골판사로 일하다가, 2004년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그 무렵 남다른 신념처럼 들려오는 국민들의 민원서류를 검토하면서, 민원의 신속한 처리야말로 보통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인권문제일 수 있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

2001년 11월 25일 국가독립기구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짧은 시간동안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인권이 논의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가보안법, 사회보

법, 비정규직,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테러방지법, 호주제, 사형제도 폐지 등 중요한 인권현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내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의 인권문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초 초등학교의 일기장 검사와 중·고등학교생들의 강제부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리자 일부 언론에서는 "인권위가 과도한 의견을 폈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나는 이러한 일상의 잘못된 관행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인권문제야말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국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 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57년, 이제 대한민국은 인권선언도 57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지난 여름 더 고한 고충의 소복도에서 만난 한연인들은 아직도 일본정부를 향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중들과 차상위계층 및 아주 노동자의 실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현대사회의 인권은 국가적력, 고문 등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인권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사회권적 권리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서울대 동문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고충 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쏟고, 나아가 작은 일에서부터 인권감수성을 퍼뜨리는 귀중한 흔적이 되기를 바란다.



趙永堯
(사대원69-7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동문칼럼

미국인에게 한미동맹은?

작용·반작용 법칙은 물리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상대에게 서운하면 상대반도 내게 서운하기 마련이다.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 외교의 세계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외교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비단길' 같은 칼'이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두 나라간의 연결고리가 강고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선언을 어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실제적 진실은 결코 간단치 않다.

한미동맹의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지ahren의 이야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식 채널을 통해서 감지할 수 없는 미국의 기류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월리엄 미하일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10월 '애틀랜틱'지의 세미나에서 한미관계를 시선으로 주제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남북대화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보더라도, 아일런드식 초상집 발생이 생각된다. 동맹이라는 사실이 방 성면에 놓여져 있고, 미국은 높은 아저씨처럼 방구석에서 코를 골고 있고, 한국의 보수파들은 술을 마시고 유족들처럼 앉아서 위해 열심 기도한다. 나머지 한국 사람들은 방 뒤쪽에 서서 '당지'는 건달에 주정뱅이였다"라고 통통하게 속삭이는 북한이라는 천적의 밑에 깔을 이고 있다. 남은 건 장의사가 관을 봉하는 일이다."

한미동맹을 시선에 비유한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북한의 회의를 위해 미국의 공조를 부차기 해는 한국정부에 대해 '서운한 속삭'이 담겨져 있다. 자위자원에서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부이긴 하지만 '용인'하는 기류가 정치권 내에

있어왔고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은 사실이다. 핵안 위원은, 6자 회담과 한중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평했다. "베르트는 중국이 6자 회담 음악 연주를 지휘하는 가운데 한국사회는 중국의 장단에 맞춰 열심히 악기를 연주한 것으로 비쳐진다. 한국은 중국의 풍만에 떨어지려는 약한 가지에 매달려 버림에 흔들리는 참 작은 사파와 같다."

월리엄의 진단은 정확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편협교류를 지양하고 4자간의 균형교류를 지향한다는 '동북아균형자본'을 펴고 있

다. 그러나 미·일과 중·러의 탈락관계 그리고 북·중의 탈락관계 속에서 균형을 잃어온 '용인'의 폭을 갖기 어렵다. 결국 균형의 교는 중국에 구애하는 것이다. 미국에게 한·중·북·러의 연합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 "따라 따라 미국에도 손이 얹어야 한다"는 주장은 맞다. 하지만 이는 균형자본과 별개이다.

최근 한국정부는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 처음으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했다. 그 리고 한·중 FTA협상을 조기에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국과 취한 발 빠른 조치는 지지부진한 한·미 FTA협상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시장경제지위 부여로 중국과 상·가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포석은 나름 것 있어 보이지만, 중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자해대' 하나를 잃는 것이다. 산업구조 면에서 중국은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과거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한국이 누린 수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전략의 선택은 국운을 좌우한다. 집단으로서 빠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성체의 외교로는 국익을 추구할 수 없다. 자유와 인권의 대의가 한미동맹의 초석인 것이다.



趙東根
(건축71-75)
명지대 교수·비판사회시민
회의 시장경제지위수장

공과대학동창회

2010년까지 기금 1백억 모금

공과대학동창회(회장 南正敎)는 지난 11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이더볼룸에서 송년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南正敎 전임 회장, 본회 林光洙회장·孔大植부회장·禹仁仁이사·許 應사무총장, 모교 李基俊 전임 총장·李鎭仁부총장·金道然학장,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徐廷旭회장 등 4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金道然학장이 준비한 '사진으로 보는 공대 역사', '2005년 공대 현황', '발전 계획' 등을 통해 공대 현황을 보고받았다. 金학장은 "현재

공과대학은 엔지니어가 아닌 글로벌리더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5년 이내 5개 분야의 분야를 세계 최고로 키워 나갔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가 발표한 세계 대학 분야별 순위에서 공과대학이 63위에 오른바 있다.

南正敎회장은 "모교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동문들의 후원이 절실하다"며 "2010년까지 발전기금 1백억원 모금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수한 인재육성과 확보에



국가와 기업의 운명이 걸려 있다"며 "후학들을 키우는 일에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공대인들이 앞장서서 힘을 모아 한다"고 역설했다.

공식행사 후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 각 기수를 대표해 여러 중문들이 덕담을 늘어냈다.

특히 金基俊(전기공학57-63) 동문이 미술과 함께 재미있는 유

머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큰 박수를 받았다. 여성동문을 대표해 나온 金銀愛(건축71-75) 동문은 "현재 공대를 졸업한 여성동문이 9백여 명에 이른다"며 "내년에 1천번째 회원을 맞이하며 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문들의 년남 후 모교에 대한 정경단과 관현악단의 공연으로 이날 행사를 마쳤다.

사범대학동창회

柳子孝동문 특강 펼쳐

사범대학동창회(회장 李相國)는 지난 11월 26~27일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포천군 산정호수 유스타운 수련원에서 동문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목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첫날인 26일 柳子孝(불어교육 68-75)동문이 '모교와 문화'이라는 주제로 사범대학 출신 문화인들의 화상시절과 작품 감상 등을 강연해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간담회 후에는 레크리에이션으로 첫날 행사뿐 마친 동문들은 이틀남 일근 연천장에서 몸을 쉰 뒤 명성산 등반으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치과대학동창회

병원과 공동 학술대회

치과대학동창회(회장 白純之)는 지난 10월 30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과병원 대강당에서 모교 치과병원, 치과대학과 함께 '치과병원 독립병원화 1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알뜰한, 기초치과학 등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白純之회장은 "동창회와 병원이 따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뜻이 맞아 세 단체가 함께 하게 됐다"며 "동창회 회원들이 임신 현장에서 제직한 경험과 치과 교수님들의 이론, 병원의 임상이 결합해 내용적으로 완벽성을 기할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南)

5개 분야 국가정책인 대상 시상

世直(8기)총재, 사회보전분야에 국립암센터 朴在甲(의학67-73-54기)원장, 교육분야에 한국교육심의회 崔鉉(6기)총연합회 회장, 기업경영분야에 홍아삼사·朴治鉉(22기)회장·유니산산업 李廷洙(35기)회장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朴在甲동문은 수상자를 대표해 "자보다 훌륭한 동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국가를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내년에는 여성동문을 위한 상도 제정하면 좋겠다"고 제

안했다. 시상식에 이어 李廷益(34기)·南相海(37기)·金玟在(57기)수석 부회장이께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행정대학원 李連坤원장·金光雄교수와 간현의원 金濟洙(16기)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다 참가자는 60기가 받았다.

공식행사 후 이어진 여흥시간에는 외부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해 흥겨운 한바탕을 연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李東俊학장, 金濟洙(16기)·朴治鉉(22기)·盧嘉燾(33기)·李廷益(34기)·李廷洙(35기)·南相海(37기)·李聯湖(53기)·金玟在(57기)동문 등이 현금과 물품을 협찬했다.



좌로부터 朴在甲·朴世直동문, 南相海동문 부인, 朴寬用·李東俊·金光雄·崔鉉·朴治鉉·李廷洙동문

ACAD동창회

국가정책과학동창회(회장 李東俊)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5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서울대 국가정책인의 밤 및 자랑스러운 국가정책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朴寬用(18기)이사가장 이 정치분야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행정분야에 趙士南을 차

행정대학원동창회

새 회장에 鄭正信동문

행정대학원동창회(회장 金光雄)는 최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가넷볼에서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윤산대학교 鄭正信(행정61-65)총장(사진)을 선출했다.

신임 鄭회장은 68년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봉림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모교 행정대학원장, 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안상이 제정돼 1회 수상자로 한 국마사회 李佑宰(57-62)회장을 선정했다.

총회 후 동문들은 미생물·생화학·공중보건학 연구실을 돌아보고 모교 수의학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스낵바 드레스에서 모교 李鎭仁(83-87)교수의 'Snuppy의 탄생'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李佑宰 前수의학 회장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鄭英彩)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대 활동강의실에서 1백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겸한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수의

이순테니스회

신임 회장에 金正澈동문

이순테니스회(회장 申秉澈)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 코트에서 제46회 정기대회 겸 총회를 개최하고 정경진원 金正澈(건축52-56) 명예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경기에는 閔寬植(농학40졸)·馬慶龍(화학45-48)동문 등 20여 명이 참석해 노익장을 펴시

- 바로 잡습니다 -

지난 동창회보 제332호(11월 15일자) 4면 등산대회 협찬자 명단에서 대한반포 회장 '최명민 문리70'은 '최명민 문리71'의 오타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또 23면 나의 건강법 기사 가운데 '露山 李殷相선생'을 '麓山 李殷相선생'으로 정정합니다.

동문 작품 전시회



李雪子作

'자연의 느낌', 한자·혼합채색, 53x45.5cm, 2003.

<작가약력>

- ▲61~66년 모교 미술회와 졸업
- ▲63년 국전 문교부장관상 수상(15회)
- ▲74년 성신여대 대학원 졸업
- ▲76~06년 개인전 5회
- ▲86년 Salon des Artistes Francais 초대전 - 한국 현대 미술의

- ▲87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 ▲83~88년 한국미술협회 이사
- ▲88년 서울현대미술제 초대전
- ▲96년 한국화의 현대적 해석과 이미지 표현
- ▲96년 현상의 과잉시대 초대전
- ▲현재 성신여대 미술학과 학장



합창단동문회

창단 25주년 기념 메시아 공연

합창단동문회(회장 金德珠)는 지난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창단 25주년을 기념해 이루어진 합창단 최초로 행렬의 오르토리오 메시아 전곡을 공연했다.

재학생 90여 명과 함께 한 이날 공연에는 동문 60여 명이 참여해 완벽한 하모니를 뽐냈다. 공연이 끝난 후 1천4백여 관객들의 요청에 의해 '합창무아'와 '남촌'을 영결송으로 회답하기도 했다.

金德珠(산업공학81·85 KVC창업투자 대표)회장은 "이번 공연을 기획할 때 익숙한 곡을 할 것인지 어렵더라도 음악적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곡을 할 것인지의 결이 분명했다"며 "결국 어렵더라도 새로운 곡으로 25주년을 기념하자는 의견이 많아 메시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합창단동문회는 이번 공연을 위해 5개월 동안 입을 맞춰왔다. 대부분의 동문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모이기가 쉽지 않았다. OB합창단 李海峯(성유공학94-98)단장은 "상관의 눈치를 보며 매주 연습에 참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평생 한번 하기 힘든 메시아 전곡을 연주한다는 것과 80학년부터 05학번까지 함께 한다는 매력에 이끌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합창단동문회는 지난 84년 설립돼 현재 8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중 1백여 명의 회원들이 OB합창단을 조직해 매년 2차례의 정기공연과 2년에 한번씩 크리스마스 공연을 갖고 있다.

이번 공연을 위해 金用洙(산업공학79·84 베스트바이어 대표)·崔星臣(산업공학81·85 SK 엔지니어 대표)·李奇衡(전문82-87 인터파크 대표)·曹大鏞(국사87-94 월드건설 대표) 등 동문들이 거금을 쾌척했다.

간호대학동창회

아유회·버룩시장 열어

간호대학동창회(회장 俞淑子)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아유회 및 버룩시장'을 개최했다.

李淑子(82-86)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아유회에서 동문 가족들은 즐거운 게임과 춤을 배우며 화창한 가을 날씨를 만끽했다.

오후 2회를 맞은 버룩시장에는 많은 동문들이 전자제품, 의류, 화장품 등의 재할용품이나 새 제품을 합천해 7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수익금은 찬조금 25만원을 더해 간호대 발전기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를 위해 俞淑子회장, 朴聖敎(63층)·李倫京(65-69)동문이 물품을 합천했다.

AMPFI동창회

음식경연·체육대회 개최

식품 및 의식산업정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朴東南)는 최근 모교 사범대학 부설여중 대운동장에서 동문 가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동문 가족 체육대회 및 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 이어 축구, 족구, 계주 등 체육대회가 진행됐으며 33개 동문업체에서 다양한 음식을 출품해 참석자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특히 朴東南회장은 5백인전 전주비빔밥 행사를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체육대회 종합우승은 17기가 차지했으며, 15대지필 신일산(147기)대표가 출연한 5백만원 상당의 '솔빛대'는 鄭明愛(97기)동문에게 돌아갔다.



약학대학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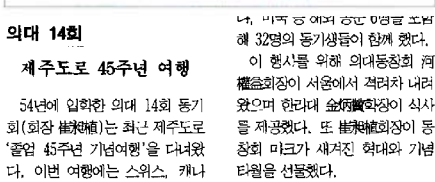
동문자녀 제약실습 참여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金鎬)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2백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34회 동문 가족 주관으로 제24회 동창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 가족들은 교수회관을 출발해 산책로입구-도서관-관악교-제약실습동을 걸으며 봄을 즐겼다. 점심 식사 후 이어진 명랑 운동회는 원로·부부·가족경기 등 8개 부문으로 나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을 연출했다.

특히 올해는 동문 자녀들을 위한 '나도 자랑스런 약사가 되래요'란 제약공학 실습 프로그램을 기획해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

이날 행사를 위해 李金鎬가 컴퓨터 LCD모니터를 합천한 것을 비롯해 극동제약과 李金鎬(약학46-49) 명예회장, 약사공론 李奎鎭(약학60-65)주간, 대한약사회 元喜融(약학73-77)회장 등 많은 동문들이 푸짐한 경품을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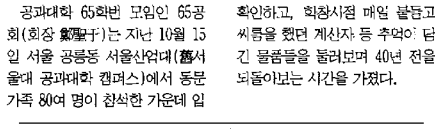
의대 14회

제주도로 45주년 여행

54년에 입학한 의대 14회 동기회(회장 崔桂植)는 최근 제주도로 '졸업 45주년 기념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에는 스위스, 캐나다, 미국 등 여러 나라 명소를 여행해 32명의 동기생들이 함께 했다.

이 행사를 위해 의대동창회 河權益회장이 서울에서 격려차 내려왔으며 한라대 金炳實학장이 식사를 제공했다. 또 崔桂植회장이 동창회 마크가 새겨진 학대와 기념타월을 선물했다.

학 4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65년도 모교 합격자명단에 실린 동기원보 호호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하고, 회창시절 매일 붙들고 씨름을 했던 계산자 등 추억이 담긴 물품들을 둘러보며 40년 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목공학동창회

4백30여 동문 모교 방문

토목공학동창회(회장 張承潤)는 지난 11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동문 가족 4백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졸업 30주년을 맞은 29회 동기회 주재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9회 동기회의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설립 기금 증정식, 동창회 장학금 수여, 은사 소개 및 선문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 후 정근관과 韓寅權(의학71-77)교수가 '즐거워도 치르의 현재와 미래'란 제목으로 특강을 펼쳤다. (南)

제8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많은 후보자의 추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추천서, 파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1) 접수마감: 2006년 1월 31일
2)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702-2233·팩스: 703-0755)
4. 시상 시기: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06년 3월 17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법과대학동창회

바둑·동산대회로 한마음

법과대학동창회(회장 丁海福)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추계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단체전 A(2급 이상)·B(3급 이하)조와 개인전으로 치러진 이날 경기결과 A조에서는 17회 동기회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22회, 43회 동기회가 뒤를 이었다. B조에서는 16회 동기회가 1위에 올랐으며 13회, 14회 동기회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崔現鏞(법학84학) 등등이 崔煥燮(법학68-72) 동문을 따돌리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으며 朴仁煥(공법86-91) 동문이 3위를 했다.

한편 지난 11월 5일 서울 동봉산에서 동문 가족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산대회를 열었다.

상과대학동창회

43동기회, 바둑대회 우승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燮)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동원생관에서 2층에서 제1회 동문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13개팀이 각축을 벌인 단체전에서는 姜 熾(경제85-92)·金善煥(경제85-92)·金 顯(경제85-90) 동문이 팀을 이룬 43회 동기회가 4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23회, 19회 동기회가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17명이 참가한 개인전에서는 鄭 洲和(경제72-76) 동문이 4승을 하며 李曉煥(상학66-70) 동문을 2점 차로 누르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3위는 金鍾健(경원65-69) 동문이 차지했다.



올해 세 번째 에이지슈터를 기록한 鄭潤煥 동문

치대 여자동문회

골프대회 통해 친목도모

치과대학 여자동문회(회장 高聖姬)는 지난 10월 20일 경기도 광주 녹서울CC에서 제3회 친목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결과 86대를 진 韓松利(89-95) 동문이 매달리스트에 올랐으며 許永聖(84-90)·최정영(85-91) 동문이 각각 통계스트상과 내어리스트상을 수상했다.

한편 경기를 치르기 전에 적은 예산스코어와 가장 근접한 타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주는 '어나스트상'은 韓金男(81-89) 동문에게 돌아갔다.

AMPP동창회

제1회 골프대회 개최

허양정최최고과정동창회(회장 南正明)는 최근 경기도 평택 해군골프장에서 제1회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결과 韓正明(1기)회장이 82타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김은주(2기) 동문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농생대 서둔회

鄭潤煥 동문 에이지슈터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골프로 입인 서둔회(회장 尹潤煥)는 지난 11월 21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CC에서 장구 친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임성희학 鄭潤煥(입학56-62)회장(사진)이 70타를 기록해 우승과 함께 에이지슈터(한 라운드를 자신의 나이에 이하 스코어로 마치는 것)상을 받았다.

鄭潤煥은 "이번이 올해 3번째 에이지슈터"라며 "대학골프협회로부터 인증서도 받았다"고 전했다. 鄭潤煥은 지난 5월 본회가 주최한 '모교 교직원 초청 사단골프대회'에서도 71타를 기록해 매달리스트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구력 24년인 鄭潤煥은 최고 기록은 68타이며 복기는 드라이브브라고.

문리대 OB산악회

'비단길 보고서' 출판기념회

지난해 7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무주타고 아타와 비단길을 다녀온 문리대 OB산악회(회장 曹圭堉)가 최근 그동안의 탐사 일지, 사진, 논문 등을 정리해 '비단길 보고서'(수목산방, 증상판)를 발간했다. (25면 참조)

지난 10월 28일 서울 마포 동창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문리대 OB산악회원과 산악인 60여 명이 참석해 '비단길 보고서' 출판과정을 듣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金永燦(문학48-56)前대한산악연맹회장은 "50~60대 회원들이 해외원정과 탐사를 병행하는 것은 문리대 산악회의 자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에 나

온 보고서는 산악관련 책을 구하기 힘든 국내에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문리대 산악회의 모토인 아카데미즘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글, 사진, 그림 작업에 韓相福(사회56-61)·徐在万(철학59-63)·金永燦(영문62-69)·李道元(식물71-78)·李 濤(의학73-81)·張美瑤(사회교육74-78)동문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曹圭堉회장은 "이 책을 통해 자연은 성부의 대상이 아닌 위대한 배움의 터전"이라는 경법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南)

재미 동문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미주지역 동창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를 논의하는 2006년도 재미서울대동창회협의회와 아태와 같이 전상 크루즈 여행을 결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국에 계시는 동문들 중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초청하오니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환상적인 일정에 많이 참여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06년 5월 22~27일 (5박 6일, 미국시간)
- ◆출 발 지: Port Canaveral(Orlando, FL) 오후 4시30분 출발
- ◆경 유 지: Grand Turk, Half Moon Cay, Nassau(Bahamas)
- ◆전체비용: 항공료 + 크루즈 비용
- ◆크루즈 비용: (A, B 중 택일) (상선 2인 1실 기준가)
- A) Ocean View \$500 + \$164.83(항공사용료) = \$664.83
- B) Interior \$460 + \$164.83(항공사용료) = \$624.83
- ◆행사내용: 재미평의원회, 국내 석학의 강연, 각종 공연, 골프 및 해양 스포츠, 여행 등(희망자에 한하여 李典九수석부회장의 골프장 방문 또는 플로리다 최고의 문화 나들이 방문 등 추가 일정 가능)
- ◆예약기간: 2005년 12월 30일

후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동창회(02-702-2233) 또는 재미 서울대동창회(703-354-434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주소: www.carnival.com)

재미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소장품·건물 규모 모두 선진국 수준 이뤘어요”

문제를 찾아서

李健茂 국립중앙박물관장

지난 10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이 9만여 평의 용산 부지에 세계 여섯 번째 규모의 초대형 박물관으로 건립의 개관했다. 개관 전부터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아왔던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 직후 수많은 인파가 몰려 한국 문화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통적인 박물관 기능의 약연을 확대해 극장·홀, 어린이박물관 등을 열어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역할도 복돋워 해내고 있다.

개관 한 달째를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李健茂(고고인류65·69)관장을 만나 용산 부지의 이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 광복 60주년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 60돌을 맞아 새 보금자리로 옮겼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이 변듯한 건물 없이 운영됐기 때문에 외국 박물관에 비해 저평가를 받아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천1백여원 이상을 들여 지은 건물이 있으니 박물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무역국으로 보이든 세계 11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그에 맞는 박물관 건물을 우리도 갖는 게 마땅하겠죠. 국민들께서도 그런 자부심 때문에 우리 박물관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공모를 통해 임용되었고 또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하시어 새 박물관 건립의 대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지위가 격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 특히 문화계에서 높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 때부터 차관급으로 격상했는데 훨씬 더 책임이 따랐겠죠.”

그러나 저는 비록 광주박물관장을 맡은 적도 있었지만 사실 학예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관장의 역할보다는 학문연구가 제게 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장 공모에 응했던 것은 새 박물관 건립 등의 당연한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 인사분보다는 업무 환경이나 직원 과업에 빠른 내부 사람이 새 관장에 더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직원들도 그런 의견을 주었고요.”

— 많은 예산을 들인 건물 건립과 이전 문제 등으로 여러모로 고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새 박물관 개관이 제게 맡겨진 가장 크고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면 책임

본보 차림은섭위원
대답 : (한글컴체신문 논설위원)

을 져야 한다는 각오로 일했죠. 성공적인 거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물 이전문제와 미군 헬기 착륙장 이전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난항에 봉착했던 것은 역시 미군 헬기 착륙장 이전 문제였죠. 국민들하고도 2005년 10월에 개관한다고 이미 약속한 상태였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하면 박물관 정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헬기 착륙장이 있었을 상황이 벌어질 뻔한 거죠. 다행히 지난 5월 1일 그 부지를 인수했어요.

유물 이전문제도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었죠. 전 직원들이 전부 동원됐으니까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 현재 소장품 수량은 어느 정도이며 이중에 얼마나 전시되고 있는지.

“약 15만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중에 1만1천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전 박물관보다는 두 배 가량 전시품목을 늘렸습

언제나 찾아와서 천천히 관람하길

미군 헬기장 이전문제 가장 어려워

— 소장품 중 일부만 전시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우리 박물관은 소장품을 통해 일반인들이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고 관심을 끌만한 유물들을 택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굳이 일부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숏과 유물은 순환해서 전시하고 있죠. 사실 소장 유물들이 전시를 위한 것보다는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부분이기 때문에 전시 품목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 공사가 잘 마무리될 상공적인 개관을 하겠는데 공사 기간 중 제일 어려웠던 점은.

“민간화 유물들을 보관해야 하는 곳이라 건물을 지으면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수장고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제대로 만들어야 했고 진열장 배치 등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 수장고와 전에는 지하에 있어 걱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앞서 보던 지하 1층처럼 보이던 뒤에 서 보면 지상 1층입니다. 결국 지상으로 옮



린은 거죠. 수장고가 지하에 있으면 유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결로 현상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벽도 이중으로 했고 풍조시청과 조습 패일을 붙여 습도를 자체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장고는 누가 봐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더 완벽한 박물관 건립을 위해 직원들을 해외에 많이 보내 갖기 박물관 건립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4만명이 넘게 오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 그러면 어떻게 다 수용하셨는지.

“유물 보호와 쾌적한 관람을 위해 무료지나 타켓을 제한해서 반부하는 방법으로 관람 인원수를 제한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안내 순검도를 체크해 일부 사람들이 빠져나 가면 다시 들어보내는 방식을 썼죠.”

— 왜 그렇게 관람객들이 많이 몰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5일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본 안 들이면서 볼 만한 것을 찾다보니 박물관을 찾게 되고 또 요즘 첨가전이 인기 있는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 연료와 설명 등에서 오류 및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역사학자 분들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기가 되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아직 역사 박물관은 아닙니다. 총독부 박물관이 광복이 되면서 국립박물관으로 바뀌고, 다시 덕수궁미술관(옛 왕실박물관)을 흡수 통합해 국립중앙박물관이 됐기 때문에 고고학과 미술학 중심의 박물관 성격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내용하고 고고학적인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사화를 하시는 분들의 지적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견을 수용해서 연대 표기를 수정했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박물관은 역사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역사부가 설치되고 역사관이 꾸며졌죠. 이를 더 발전시켜 계속 자료를 구비해 상설화한 역사 박물관으로 전환해 예정입니다. 아직 15년이 걸렸지 20년이 걸릴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 의견으로는 어느 정도 갖춰진 모습인데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면에서 새로운 것들이 요구되고 시도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실 텐데.

“외국 유명 박물관에 대해 소장품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이 상대적으로 압세인데 이를 만회하고 있어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도입한 MIP 플랫폼과 PDA 시스템 등은 정말 최신 운영기기이죠. 특히 영상패널을 많이 도입했는데 지금은 빠르게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많은 작품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프로그램을 자주 새로운 것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외국관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적정 관람인원은 몇 명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시 제자 적정 관람인원을 3천명 정도로 선정했습니다. 하루 총 적정인원은 약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평일에 1만6천명 정도, 주말에는 3만명 정도가 관람하고 있으니 그 만큼 쾌적한 관람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 하루에 가장 관람객이 많았을 때는.





— 문화재를 좀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있을 텐데,

“저희들이 관련 편의를 위해 꼭 봐야 할 ‘50선’, ‘100선’ 등으로 유물들을 표시해놓았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아무 때나 와서 머리를 식히며 전한다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본만류 더 보인다고 칭찬하길 강요한다면 재미를 느끼게 될 겁니다. 전사실이 총 6개로 고고관, 역사관, 아시아관, 미술 1관·2관, 기증관 등이 있는데 오실 때마다 한 관씩 덕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물화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입장료는 얼마가 될 예정인가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어른이 2천원이고 중·고등학생이 1천원, 어린이는 5백원입니다. 이전 전에는 청소년은 무료였고 어른은 7백원이었습니다. 몇 배 오른 거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크게 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장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했었는데 3천원을 받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이 와서 관람할 때 교통비, 입장료, 식음료 비용을 총 합쳐 2만원을 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최종적으로 입장료를 결정했습니다. 또 어린이는 무료로 하려고 했으나 유물의 소중한 가치와 가치를 깨닫게 하려는 의미로 요금을 받기로 했죠.”

— 전공 선택은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특별한 이유 없이 선택한 전공이었지만 공부하면서 많은 흥미를 느껴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따라 답사도 다니고 지포 조사도 하면서 제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상당히 재미가 있었어요. 공부는 역시 재미가 있어야 열심히 하게 되니까 재미가 중요하죠.”

— 형님(李茂茂) 기계공학63·67·모교 공대 교수)께서는 공대를 졸업하셨는데, 그런데 대개 보면 한 집안에서 가족끼리 비슷한 전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전공이 나뉘어졌어요.

“할아버님(李奎漢, 대의원53졸·前通교부 장관)은 국사학을 공부하셨는데 아비님(李春壽, 농학36·39·모교 명예교수)은 이과를 공부하셨는데, 형님은 아비님 아버님을 본받아 이과계통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박물관에 몸담으면서 유적 발굴과 연구를 지속해오셨는데 보람이 있었던 점은.

“저는 비교적 박공 운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중요한 유적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선사 시대 목관을 비롯해 북과 철기 등 최초로 수석이 붙은 발굴을 많이 했죠. 서울 암사동 유적도 기억에 남는 발굴 중에 하나였어요.”

— 그동안 청동기만 연구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를 박물관에 들어왔을 때 선사시대 청동기전을 열었죠. 그때도 석기와 철기 사이에서 청동기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마구 진열돼 있었는데 그때는 청동기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역사기록도 적었던 시대였으니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동기를 공부하러다니며 역사를 새로 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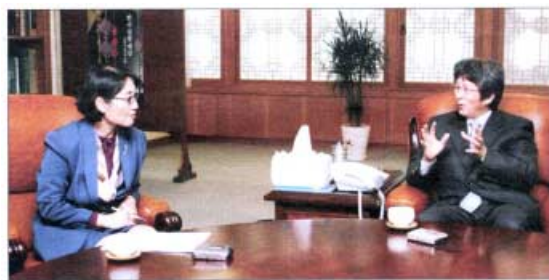
는 재미도 갖게 됐죠.”

— 청동기 유물 중에 특별히 더 애착이 가는 것이 있다면.

“청동기 때 종교 의식에 사용했던 ‘청동 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은 원시 종교와 연관이 있고 복장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죠. 제작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도 그 제작 기법을 밝혀낼 수 없어요.”

— 국내 고고학계엔 ‘건백지교(健白之交)’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건(健)은李孝章님을 칭하고 백(白)은李白圭(고고인류 65·72) 경북대 교수 겸 한국고고학회장님을 일컫는다고 들었습니다. 두분 사이를 간단히 소개하신다면, 그밖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첨단 영상장비 갖춰 감상효과 극대화 새로운 문화상품 개발·경영혁신할 터



“같은 학연으로 늘 같이 붙어 다녔어요. 또 수석교수까지 대하으로 떠날 때까지 박물관에서도 같이 일하고 발굴도 같이 다녀오니 좀 오래된 사이죠. 그리고 그때 동기를 불리고는 자주 만났어요. 65학번 동기끼리 ‘이담회’라는 것을 만들어 매달 두 번째 교요일에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인원은 10명 정도 되는데 급유에게 총사령관 동기들은 거의 은퇴하고 전교전북지방 차관을 하고 현재 홀트운동복지회 회장인李鍾尹씨, 전남대 인류학과 崔 協古수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계 인사 중에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제대로 뵈지는 못했지만 백남준 씨를 평소 존경해왔습니다. 남이 개척하지 않은 분야에서 평생 매진한 그런 분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의 예술을 통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평생 한 길만을 가신 백남준 씨 같은 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 호가 좋아하시죠. 어떤 계기로 만드셨는지.

“경주에 시시는 한 한토사화자 분께서 지어주셨습니다. 할아버님의 호 斗溪의 溪에서 斗字를 붙인 거죠.”

—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지요.

“테니스를 즐겨합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테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저녁

때 직원들 중 테니스를 좋아하는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한 몇 살만 났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운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끝까지 안 하시는지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끝까지 한다는 게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안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 한때 일어났던 서울대 폐교론과 논술고사 논란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대 출신들이 남을 배려하는 부분이 좀 작아서 그런 말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살할 부분이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폐교론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대 출신들이 사회적으로 남보다 앞서 진출하다

정변호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추었는데 단지 관리 변호에 불과하다는 것과 남대문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화재라는 것을 작곡 안하기로 했습니다. 남대문은 서울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유산이지만 언제나 일제 청산문과 겹쳐 논의되니 마치 일제가 만든 것처럼 인식될 정도가 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개관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을 높인 데 더욱 책임이 막중하시라고도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은.

“현재 우리 박물관의 중장기 계획은 이미 많이 만들어져 확장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박물관의 업무는 본좌해 보전, 관리 등의 업무는 당연히 지속될 사항이고, 앞으로 연구 활성화를 통해 더욱 더 많은 성과를 내어 교육 또는 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려고 합니다.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확장안을 짜놓은 상황입니다.”

또 향후 박물관의 모습이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겠으나 경영면에서 한층 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는 시한단 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분화 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사서관리를 혁신시킬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 예산도 어떻게 하면 덜 쓰면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관계자들이 많이 찾아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은퇴하신 뒤의 계획은.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아직 나이에 그칠 게 많고 생각하고 또 그동안에 한 공부가 제게 씩 충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좀더 모르겠습니다.”

— 학술적으로도 늘 좋은 성과를 올리시고 또 성공적인 박물관 건립과 개관을 이루셨는데 그동안 자신의 활동에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은 어떤 것인지를.

“그동안 제 활동에 운이 많이 따라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관을 하는 데에도 만약 생각이 없었다면 연기가 붙기뻔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 태풍도 피해가서 제 때 개관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줘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 게 모두 제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운이라는 것이 늘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기지 때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제가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집에 불단을 만들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것도 큰 힘이 됐다고 할까요.”

— 총동창회에서 마포에 장학빌딩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데.

“총동창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여러 인원을 그리고 많은 도움들께서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동문들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하는 이런 중대한 일에는 역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리=李春壽기자)

동문기자 취재수첩

기자가 좋아(싫어)하는 취재원

체육부 프로야구 담당기자는 야간경기 때 9회 할 때 통역기기를 전 선수들 싫어한다. 야전 끝까지 홈런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그냥 아파있었으면 한다. 경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조선신문은 하룻밤에도 몇 번씩 판(版)을 바꾼다. 각 판마다 마감 시간이 있다. 동접타로 연장전에 들어가 바르면 지방에 계신 독자들을 위한 신문의 마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경기결과를 아침에 신문들 볼 독자들에게 전해주시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장을 부르는 동접타가 나오면 관중들은 짜릿함을 즐기며 기뻐하겠지만, 체육부에서는 골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온다. 잦은 투수교체로 경기시간을 길게 끄는 감독 또한 반기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필자가 지난 9월초까지 일했던 정치부의 경우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재원은 전 화 잘 받아주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말'로 먹고살고, 기자들은 그 '말'에 의존해 먹고살다.

말은 서로 주고받는다. 그런데 자신이 필요할 때는 전화를 골라 하면서, 정치 기자들에게 전화 할 만한 심리에 놓였을 때에는 휴대폰을 꺼버리거나 수화기에서 거액만 맡겨 "의외입니다 지금 통화가 힘들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듣게 할 때는 정말 짜증이 난다.

지금은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어느 유력 정치인은 초선의원 때 배에 귀가하는 승용차 안에서 골한 전화를 붙들었다고 한다. 전화를 했었으나 회의를 중이기에 중요한 약속으로 인해 통화를 하지 못했던 기자들에게 최신 전화를 해주는 것이다.

일선 반장급인 고참뿐 아니라 이른바 '밀진'이라 불리는 막내 기자들의 전화까지 행거했다. 그의 부지런함은 기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그에 대한 좋은 평가로 이어졌고,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정치권과 정부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인은 자기 부를 기사 빼고는 신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 정치인들은 언론에 자신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것 같다. 많은 정치인들은 인간적으로 경정력이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사람들인수록 허풍이 심하다. 이들은 자신이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자신의 당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스레 이야기한다.

속언만 안 된다. 그래서 정치부에 갔을 때는 기자들에게 고관들은 "정치인의 자기 자랑은 50%만 받아들여라"고 충고한다.

정치부의 기피대상 취재원 중 하나는 현란한 자기과시형이다.

지금 필자의 출입처인 법조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기피대상으로 꼽힌다. 피의자든 검사든 마찬가지다. 지난 추석직전 세간의 화제인 이른바 '안기부 X파문'과 관련, 어느 유명 인사가 소환된 일이 있었다.



金 男 壽
(동양사회86-92)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대우

조사는 밤 10시쯤 끝났다. 그가 검찰청사를 나갈 때 한 마디라도 듣기 위해 기자들은 대기실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 시간, 두 시간이 흘러 자정이 지나지만 조사를 마쳤다는 그 인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새벽 2시쯤에 검찰청사를 떠났다. 기자들이 이유를 알아보니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담은 신문조서를 4시간 가까이 읽고 또 읽었던 것이다.

신문이 끝나면 검사는 진술자에게 조서를 읽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수사관과 청사를 벗어나고픈 마음에 시간지나듯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인사는 결에서 지켜보던 담당 검사조차 지칠 정도로 자신의 신문조서를 4시간에 걸쳐 꼼꼼하게 읽고 또 읽었다. 그 사이 기자들은 집에 못 가고 밤하늘을 쳐다보며, 허영없이 다기를 해야만 했다.

피의자를 길게 붙잡아 놓거나 유명한 검사도 있다. 소환된 피의자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불려온 사람이 귀가하는 길을 살펴봐야 할 기자들 또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조사 도중에 긴급체포 된 귀가를 못 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참고인으로 불러왔다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유방인이 검찰 청사에 올 경우에는 청사를 나가는 순간까지 신검을 관주 세워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 기자들 세계에서는 정도 이심으로 피의자를 잡아두는 검사에 대한 평판이 좋을 리 없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창당 2주년, 잔치는 끝났다?

정치부에 온 지 두 달, 출입처를 열린 우리당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필자는 평생에 한 번 만나기로 결심하는 인물, 최고의 자판전인 쓰나미도 중국이 만났다. 한 달에 한 번 볼로 재앙을 만난 셈이다. 하나는 열린우리당 文惠相 전 의장이 언급한 '신뢰의 쓰나미', 다른 하나는 '전쟁의 쓰나미'라고도 불렀던 '색깔론 쓰나미'였다.

'신뢰의 쓰나미'는 당지도부가 바둑을 치고, 대통령의 지지도도 80%대로 떨어지자 文惠相 전 당의장 입에서 나온 한탄에 가까운 정치적 표현이었다. 文惠相 전 의장은 지난 9월 중공 공산당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기간 중 김민석 현상을 두고 '빙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의 '신뢰의 쓰나미' 상황은 얼마 안 가 '색깔론 쓰나미'와 만나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색깔론을 들어선 민심을 추스려보려 했던 여당의 노력은 결국 야당의 색깔론 공세 앞에서 백을 못 주고 주저앉고 말았다. '색깔론 쓰나미'의 중심에는 千正寅법무부장관이 있었다.

千正寅이 동국대 養德敎育수 수사와 관

련회 복구속수사 지휘를 발동한 것은 재선거를 코앞에 둔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야당은 千正寅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국가 정책상의 위기 상황이라며, 색깔 공세를 폈다. 여당 입장에서 쓰나미와 같은 수위의 공격이었다. 수사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논란은 인권 보호를 위한 선택인가, 국가정체성의 근간과 검찰 중립성을 훼손한 월권인가의 논쟁으로 번졌다.

물론 비유적 표현이지만 '쓰나미'가 휩쓸고 간 열린우리당의 자리는 처참했다. 재선거 참패라는 결과는 여당 내부에서도 선거 전부터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월권여당은 막상 선거 4:0 참패라는 결과가 나오자 큰절에 분열을 거듭했다. 선거 패배에도 당 지도부 사퇴는 없을 것이니라고 거듭 강조했던 文惠相 전 의장은 당내 인력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를 선언했다. 열린우리당은 결국 1世均원내대표를 임시 의장으로 하는 '비상'집행위원회를 꾸려진 상황에서 창당 2주년을 맞이해 왔다.

'예상대로' 창당 2주년 기념식은 전권여당의 창당 행사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원은 고작 37명. 1년 전 창당기념식과는 너무 비교가

된다는 게 중론이었다. 야당 대표들의 화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직자들은 창당 행사를 예전처럼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즐길 수 없는 분위기에서 화원도 마다한다는 후문이었다.

지난해 창당 행사에서는 盧武鉉대통령이 참석해 "1백년 역사를 가진 정당을 만들어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1백년 정당으로 끌고 가기에는 힘이 부치는 모습이었



張 允 美
(철학98-03)
CBS 정치부 기자

다. 한 의원도 이런 분위기가 어색했던지 "이렇게 쓸쓸한 창당 기념식은 처음 본다"며, 축하해도 없는 당사에 사비를 털어 과일 한 상자를 두고 가기도 했다.

창당 1년이 지나자 당내에서 넘겨져 나

오는 파벌음은 소문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최근 盧武鉉대통령의 당당과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安熙根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 하지만 당내 분열의 목소리는 비단 안의원에 게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이 같은 분위기는 당권부 기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트라이트 다양한 의원들은 각각 속한 정파에서 저마다의 입장을 펴며 하느라 분주해 보인다.

당 지도부가 이 사태를 차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평소 쓴 소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丁世均의장이 앞으로 당론과 나른 정제되지 않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출하거나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당의 이름으로 엄중 문제해결하고 '귀가'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당 의회들에게 보내 바로 다음 날 속 소원이 '당의장 스타일' 때문에 당 해산은 물 건너간다는 자포자기의 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며 丁世均의장을 향한 직격탄을 날렸다.

열린우리당 창당 2주년 행사 때 의원들이 당을 혁신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진정한 개혁정당으로 거듭나자는 구호도 이어졌다. 하지만 구호를 외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일치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뜻밖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지가 창당 2주년을 맞은 열린우리당에게 과제로 주어졌다.

Noblesse Oblige

金 炯 珠 삼안코퍼레이션 회장

“사후 모든 재산 사회에 환원하겠다”

모교에 70억·장학빌딩에 10억 출연 약정

최근 모교 공과대학에 70억원 상당의 연구소를 지어주기로 약속한 동문이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주인공은 삼안코퍼레이션 金炯珠(토목46-50) 회장. 김회장은 “강대에 연구소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모교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1천5백평 규모로 내년 상반기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金동문의 나흔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금까지 1백여억 이상을 사회사업에 내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대한토목학회에 두 차례에 걸쳐 72억원을 기증한 것. 이 돈으로 빌딩을 마련한 학회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의 이름을 따 ‘金山實’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인문, 문화, 기술, 학술 분야에 기여가 많은 4명의 인사를 선정한 매년 2천만원의 상금과 손금 10량 메달을 지급하고 있다.

대한토목학회는 회관을 신축하면서 기술부부에 탁발한 업적을 남긴 金동문의 공상을 건넬때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9년 金山장학회를 설립할 때만 20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전북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다가 전국 규모로 확대해 학비 전액을 주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고향인 전북 부안에 전쟁 3천평 규모의 金山도서관을 지어 고항이론을 연구할 센터를 개관했다. 金동문은 “金동문이 태어난 부안 중흥리에 미술화관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에도 재산을 기증했다. 중국 濟南대 1백만 달러를 기부, 연구실을 설립

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濟南대는 연구실의 이름을 ‘金山 金炯珠’라고 명명하고 명예교수직을 줬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5백여 명의 한국 학생들의 ‘氣’를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죠.”

부인과 딸도 적극적인 찬성

金동문은 사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재산을 지식들에게 돌려줘도 안 된다는 것이다. 부인과 딸도 金동문의 의견에 찬성했다. 金동문은 “8년 전 후계자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한 끝에 회사를 비가하기로 결정하고 지분을 정리해 생긴 돈으로 기부 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金동문은 林光珠회장 주도로 추진되는 본회 장학재단 건립에 관해서도 추진하는 본회의 보고와 정성에 대해 감사하며 1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金동문은 지난 97년 삼안건설기술공사(현 삼안)를 기아그룹 계열사인 기산에 매각하고 지금은 자회사인 삼안코퍼레이션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도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실제 경영에서는 손을 뗀 상태다.

67년 설립된 삼안건설기술공사는 밑 설계 전문회사로 그동안 중·중·주·금산 다목적댐, 평화의 댐 설계 및 감리, 한강종합개발계획 88공법급고속도로계획 설계 등 공적인 일들을 해왔다. 해외에도 진출해 인도네시아 페마리치항 항구조



질계획 설계, 케냐의 SONDU/MIRU 수력 발전소 설계 등을 따냈고 댐 설계의 선진국인 일본에도 진출했다.

매각 전 삼안건설기술공사의 직원은 1천명이 달했고 기술사는 80여 명이 됐다. 당시 댐 설계 뿐 아니라 용역 업체로서 가장 큰 회사였다. 현재 삼안(대표 林炯珠·AMP 55기) 역시 직원이 2천명이 넘고 연간 용역 수익액이 3천억원에 달한다.

“삼안건설기술공사 설립 당시 국내 엔지니어링업계는 분모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날 삼안은 물론 국내 엔지니어링업계의 성장을 볼 때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국내 댐 설계분야 기초 다져

金동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토목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 일본의 大東亞전쟁으로 우리 나라는 물론 중국, 동남아 지역이 황폐해져 건설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형의 도움으로 도쿄에 있는 ‘시바루라공업전문학교’에 들어가 토목공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후 물리학의 권위자였던 李泰昌교수의 권유에 따라 경성대 토목공학에 입학, 건설에 대한 이론을 확고히 다졌다.

金동문이 본격적으로 댐과 관계를 맺은

것은 토목부 공무원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항상 홍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해마다 힘들게 경작한 농작물이 더풍과 홍수 때문에 한순간에 유실되는 현실을 보며 토목공부 중에서도 특히 홍수분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토목부 중에서도 물을 관리하는 이수과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공직생활 중 관비 유학생으로 발탁돼, 미국에서 댐 건설과 관련한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 물과 댐을 총괄하는 곳은 내무성 소속 미국군 공병대였다. 1년간 그들이 관할하는 각 주와 댐을 방문하며 댐을 설계할 수 있는 기본지식을 배우고 공사 기술을 익혔다.

그 후 11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강구교(경북 영덕) 복구사업, 남강댐 사업을 담당하며 댐과 하천교량 건설에 노하우를 쌓고 67년 삼안건설기술공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올해 82세인 金동문은 요즘도 회사에 매일 출근하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1년에 두 차례 동거를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입학 동기가 모두 기쁨인데, 지금 살아 있는 동기는 10명입니다. 그 중 1명은 미국에 있어 나머지 9명이 가끔 모여 식사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가 가진 지식,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金大德회장을 생활신조로 “편안할 때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金동문은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전문지식을 갖추고 평생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농부의 아들도 태어나 천천만고 끝에 오늘날의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위치를 확보해 열심히 살았습니까. 댐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공부에 있었기에 가능했는지요. 앞으로 후배들이 펼쳐나갈 세상은 더욱 전문지식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한 우물을 파는 데 열정을 쏟으십시오.” (南)

학재의 문 曹正基 한국산업개발혁신연구원 고문

“학문의 플레이보이가 됩시다”

별난 학구열... 국내외 학위 6개 취득

“평생학습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최근 전남 光州 개교기념식에서 ‘지광스러는 光人會’를 받은 曹正基(교육63-67)동문은 지금까지 취득한 학위만 6개나 된다. 특별과정을 이수한 수료증까지 하면 10개가 훌쩍 넘는다. 평생학습사회의 도열로 필모도 손색이 없다.

曹동문이 받은 학위는 공군사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 경제학 학사,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모교 교육학 학·석사, 애플스태이트대학 교육학 박사 등이다. 그밖에 한국공군대학, 美공군대학, 단국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과정 등을 이수했고 최근

에는 서울 崇仁 佛敎대학, 광주불교 대학에서 종교철학을 공부하고 있다.

“공부 욕심이 많았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미있더라고요. 공군대학에 복무하며 경제학과 교육학에 관심이 생겨 성균관대(야학)와 서울대에서 경제, 교육을 전공했죠. 서울대는 위대학으로 선발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니다. 최근에는 ‘행복한 인생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철학공부에 몰두하고 있지요.”

曹동문이 다양한 학문분야에 관심을 갖고 평생공부에 뜻을 두게 된 무에는 모교의 영향이 컸다. 당시 교육학을 강의했던 鄭炳명교수는 늘 학생들에게 “학문의 플레이



보이가 되라”고 주문했다. 하근도 음식처럼 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 동거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게 많았다. 당시 공군사관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에 편입했던 曹동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동거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曹동문은 공군사관학교 및 공군대학 경

영학 교수, 교수처장을 역임하고 지난 82년 대령으로 예편했다. 그 후 부산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하면서 대기업과 방송사, 정부 단체에 초청돼 산업 교육, 경영, 리더십 등에 관해 1천회 이상의 강의를 펼쳤다. 지난 85년 한국산업교육연구원이 선정한 ‘한국 10대 명장사, 명교수’에 뽑히기도 했다.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해 파일럿의 길을 걷지 않은 이유에 대해 曹동문은 “비행기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위와 높아 고공에서 사물을 식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 공사 3학년 시절 비행실습 중 이 사실을 통보 받고 조종사의 꿈을 접고 교수의 길을 택하게 됐다.

曹동문은 “학문의 하나로써 여권을 활동은 요즘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며 선형철학의 밑거름을 외우고 독상하는 삶을 살고 있다.”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와 남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와 남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때까지 공부하는 계속 돼야겠지요.”

서울대 가족

權炳燾 (주)지학사 회장

11명이 법학·이학 전공 “평범이 최고의 미덕”

피아노 직접 가르치고, 여행하며 자녀에 삶의 의미 깨우쳐

동창회 사무실이 아닌데도 동가생들로 북적이는 곳이 있다. 법대 11회 동기회장을 맡고 있는 權炳燾(법학53-57 (주)지학사 회장·대한출판문화협회 고문)동문의 집무실은 오랫동안 동문들이 친목을 나누는 사모방으로, 애청사와 근황을 주고받는 일로 방문으로 애용돼 왔다.

“매월 11일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 우리 동기회는 대부분 일흔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조금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무실을 아지트로 삼아 동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이런저런 인생이야기를 하며 얼굴이라도 비추고 갑 때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40년간 3백여 종 이상의 고교 교과서 합격본을 펴내며 국내 글자의 학습참고서 및 교과서전문 출판사를 운영해온 權동문은 이후 인쇄·재본을 하는 ‘벽호문화사’와 지학사의 단행본 발행을 담당하는 도서출판 ‘벽호’를 설립해 21세기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시대에 발맞춰 아이디어 개발과 지속적인 투자로 인재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밤에 잠입 후 집안행권 때문에 은행에 입시켰는데, 몇 년 뒤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퇴직금 1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한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만나 자그마한 회사를 차려 이렇게 40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가족 중 權동문의 법대 선배로는 큰며느리의 조부인 故 申基碩(법문학부33출 前부산대·영남대 총장)옹이 있으며, 후배 동문으로는 매제 姜堉喆(법학54-58 하나로제부건설팀 상임고문)동문과 조카인 姜道會(사법84-88 일신인베스트먼트 이사 겸 권



앞줄 좌로부터 세 번째 權炳燾동문, 뒷줄 좌로부터 權希真·崔大祐동문

드매니저)동문이 있다. 특히 姜동문은 30여 년간 금융전문가로 활동하면서 1970년대 초 파산직전인 기업을 구제하는 국가사업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밖에 權동문의 자녀(1녀2남) 중 장녀 權希真(심리85-89 前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동문과 사위 崔大祐(계산통계82-86 한국의대 통계학과 교수)동문, 매제 姜堉喆동문의 사위인 尹盛郁(치의학85-89 서울골통비이치과의원장·하버드대 치대 외래교수)동문이 모교를 졸업했다.

특히 사위 崔大祐동문의 조부 故 崔允植옹이 모교 수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사위의 부친인 故 崔至薰(수학49-53 前인하대 통계학과 교수)동문이 모교 수학과 조교수로 있었으며, 崔至薰동문이 모교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에는 사위 崔大祐동문이 그의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崔允植옹은 모교에 수학과를 개설해 1946년 초대 주임교수를 지냈으며, 1956년 모

교에서 국내 최초로 수학과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수학계의 태斗이다. 게다가 崔至薰동문 역시 미국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75년 모교에 통계학과를 개설하기도 했다. 崔大祐동문은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權동문은 남다른 자녀교육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그

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치도록 했어요. 무엇보다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승마와 스키를 배우게 했고, 서툰 승마지만 제가 직접 피아노를 가르치기도 했죠.

또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 달 력을 깨닫고 온 가족이 함께 1년동안 다 날 여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내의 거의 모든 유적지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한 오지까지 구석구석 누웠어요.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가르쳐주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으로써 평생동안 남을 추억을 만들어야겠다고 했죠. 미록시작 발굴현장에 도착해 고고학자들과 토론도 하고, 자녀들과 동네 어귀의 장승도 구경하고, 무량왕릉도 구경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權동문의 큰형 權炳宰씨의 두 명의

權炳燾동문의 서울대 가족

사돈

故 崔至薰(수학49-53)

장녀

權希真(심리85-89)

사위

崔大祐(계산통계82-86)

매제

姜堉喆(법학54-58)

조카딸

權景熙(물리80-84)

權景培(의학83-89)

조카

姜道會(사법84-88)

조카사위

朴炳允(물리76-80)

金基燦(의학83-89)

尹盛郁(치의학85-89)

딸 역시 수학·과학에 재능이 있어 둘째 조카딸 權景熙(물리80-84 기초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동문과 조카사위 朴炳允(물리76-80 충남대 물리학과 교수·과학영재교육원 초등과학 지도교수)동문은 같은 지도교수 아래 대학원생과 학부생으로 만났다고 한다. 특히 權景熙동문은 고교시절, 모교 수학경시대회에서 여자부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으며, 물리학과 입학생 중 홍원점으로 화제가 됐었다고. 셋째 조카딸 權景培(의학83-89 前장충환소아과의원장)동문과 조카사위 金基燦(의학83-89 이비인후과의원장)동문은 동기동창생으로 커플이 됐으며, 權景培동문은 대학시절 의대오케스트라 오보에 단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저는 지금도 가족들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현재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강조합니다. 만약 그러한 여유가 없다면 최소한 자기 가정을 지키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인물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의 미덕이며, 여류가 생기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게 우리 가족의 생활신조입니다.”

(表)

상트 페테르부르크대와 교류

교수·학생 교환 연구 협력 합의

모교(총장 鄭憲稷)는 지난 11월 8일 관악캠퍼스 경영대 LG경영관 191호실에서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대(총장 베츠카야 카야)와 교수·학생 교류 등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양교는 교수와 학생 교환, 수임료 면제, 상호 학생인정 등에 합의했으며, 공동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교류협정 체결은 최근 모교가 미국 예일대와 프란스판대, 라이스대, 영국 맨체스터대 등과 교류협정을 체결한데 이은 것으로 세계 일부 대학들과의 학술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내년 초에는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와 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鄭憲稷총장은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교수 및 학생 교류를 확대하는 등 국제적 지표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면서 보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



鄭憲稷총장(사진 좌)이 베츠카야 총장과 협정서를 교환했다.

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대는 1724년 페테르부르크에 의해 설립된 상트 페테르부르크 중앙사범대학교를 모체로 세워진 대학으로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최근 유네스코 보고에 의하면 세계 6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2회 총동창회장배

‘고교 동문 야구대회’ 열어

서인천교 출신팀 우승

지난 11월 7일 모교 관악캠퍼스 야구장에서 본교 孫一根상임부회장, 모교 체육교육과 申仁濤교수 등을 비롯해 선수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총동창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 개막식이 열렸다. (사진)

孫一根상임부회장은 林光洙회장을 대신한 대회에서 “체육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방법으로 역할을 할기 때문에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은 균형 있는 대학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하고 “이번 대회가 화합의 장으로써의 역할은 물론, 참여의 즐거움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장원 경상교 출신팀 조현태(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군이 대표로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보여 주겠다는 신세를 했으며, 孫一根상임부회장이 야구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申仁濤교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시구를 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19개팀은 6개조로 나뉘 리그전 형태로 예선전을 치렀으며, 지난 11월 16일 열린 결승전에서 서인천교 출신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야구부, 도쿄대와 친선전

모교와 일본 도쿄대 친선 야구대회가 지난 11월 19일 일본 도쿄에서 처음 열렸다. 이번 대회는 모교 鄭憲稷총장이 지난 10월말 내한한 도쿄대 고미야마 히로시(小宮山宏)총장과 ‘양 대학 야구정기전’에 합의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비록 이날 대회에서는 큰 점수 차이로 패한 것으로 이 대회는 매년 양국을 오가며 치러지는 정기대회로 정착될 예정이다.

당초 도쿄대에 경기를 먼저 제안한 이는 모교 야구부 卓正(張正)체육교수(86·90)감독이었다. 특수학교인 경운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4년째 부보수로 모교 야구부를 지도하고 있는 卓正씨는 지난 6월 도쿄대 야구부에 도전장을 낸 것이다.

모교 소식

‘훌륭한 공대 교수상’ 崔恒洵·曹裕根교수



崔恒洵교수



曹裕根교수

공과대학(학장 金道然)은 지난 11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조선해양공학부 崔恒洵(조선공학65·70)교수와 컴퓨터공학부 曹裕根(건축67·71)교수에게 ‘올해의 훌륭한 공대 교수상’을 수여했다.

연구부문을 받은 曹교수는 학술 논문 90여 편을 발표해 국내 시스템 소프트웨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육부문상을 수상한 崔교수는 선박 유체역학과 해양공학 분야 교육과 관련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공과대학

졸업 반세기 맞은 동문 홈커밍

공과대학(학장 金道然)은 지난 11월 7일 모교 관악캠퍼스 공대 엔지니어하우스에서 ‘공대 졸업 반세기 모교 방문행사’를 열어 졸업한지 50년이 넘는 선배 동문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1955년 이전에 모교 공대를 졸업한 뒤는 2백여 명과 재학생을 비롯해 본교 林光洙회장, 관악회 明泰熙·鄭哲圭이사, 공대동창회 南正欽회장, 모교 鄭憲稷총장, 金道然학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鄭憲稷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방과 건국, 그리고 6·25라는 격동의 시기에 우리 나라 최고의 자선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선배님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맨손으로 복원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이라며 “서울대의 궁극적 명예를 드높이고 후학들에게 자랑스러운 모범을 보인 공대 동문 선배님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반백년동안 공대 동문들이 국내외 중요한 위치에서 조국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하고 “21세기를 열어가는 길목에서 경쟁으로 변화해 가는 교육 정보화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우리 공대인들이 앞장서서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신임문화재단 鄭哲圭이사는 “역사적 여파를 속에서도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학계 및 산업계에 진출해 우리 나라 건국 초기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오늘 한 자리에 모여 과거를 회상하고 눈부시게 발전된 모교의 현황을 살펴볼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전하고 “모교는 세계 속의 대학으

로 가기 위해 많은 동문의 재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동문들에게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을 독려했다.

이날 공대에서 자체 제작한 동영상 ‘서울 공대의 어제와 오늘’을 통해 공대의 50년 전 모습과 현재 모습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국전 마사를 교사로 빌려 사용하던 당시 사진과 졸업증서와 학생증, 한국전쟁에 참여해 희생된 동료들의 명단 등을 통해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다.

모교는 이날 초청한 동문들에게 오찬과 공대에서 제조한 된장삼겹살을 제공했으며, 재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은 재학생과 동문간의 기쁨을 즐기는 자리가 됐다.

金道然학장은 “서울대 발전에 위해 애써준 동문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며 “국가 발전의 주역이신 선배들의 노고를 기리고 후배들과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 아시아 펠로십(Asia Fellowship)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 청암재단은 국제대학원에 입학하는 5명의 학생들에게 매년 등록금 전액과 매달 1백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국제대학원은 한양학원의 요청으로 중국 유학생들 위주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연과학대학

파리11대와 공동박사

자연과학대학(학장 吳世正)은 최근 프랑스 자연과학계몽의 최고 명문대인 파리11대와 공동박사학위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동박사학위제가 시행되면 자

연대와 파리11대의 교수 및 학생들의 공동연구, 교수들의 상대 대학 논문심사 및 학위 승인 참여 등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도입으로 모교 박사학위가 파리11대에서 인정되고 모교 자연대 출신 연구자들의 학위를 넓어지고 모교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파리11대는 모교 이외에도 중국, 일본 대학에도 교류를 추진하

고 있다. 파리11대 총장은 지난 5월 모교 鄭憲稷총장을 방문, 공동 박사학위제 추진을 위한 포괄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국제대학원

포스코 아시아 펠로십 체결

국제대학원(원장 金宗德)은 최근 포스코 청암재단과 ‘서울대-

세밀 온정이 파도처럼 ...

교보와 '기부보험' 협약
보험금, 발전기금으로

모교 鄭義泰총장과 교보생명 차 聖圭대표(사진 右)는 지난 11월 24일 모교 총동원실에서 '서울대 발전기금육을 위한 기부보험' 협약을 체결했다.

'기부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지정한 비영리 공익단체로 보험금이 자동 기부되는 보험으로 모교가 이 협약을 맺음으로써 발전기금 확대가 예상된다.

鄭義泰총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기부보험 1호 계약자가 됐다.
이 상봉은 '교보생명예유니버설보

험(보장형)'으로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동문뿐만 아니라 모교를 후원하고자 하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교보생명 차대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기부 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부보험을 계기로 동문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욱 활성화돼 대학발전에 보탬이 되고 기부문화의 저변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교 병원 발전추원회
감사의 밤 행사 개최

모교 병원 발전추원회(회장 姜浩)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트홀에서 추원회원을 위한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姜희상(사진)을 비롯해서 본회 第一振興임무회장, 모교 의과대학 王主權학장, 成相熙병원장, 김호아(사진)를 朴三求회장, 모교 병원 김호선·김지호 홍보대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주최측이 마련한 아카펠라그룹 '메이트리'의 공연을 감상한 회원들은 리셉션 자리로 옮겨 민찬을 즐기며 담소를 나눴다.
姜희상은 "올해 초 추원회를 결

성해 짧은 기간동안 적지 않은 후원금을 모금했다"며 "진정으로 고공민는 사람들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 孫상임부회장이 건배사로 이날

행사의 흥을 더욱 돋웠다. 발전추원회는 11월 29일 현재 2백30여 명의 회원이 27억4천여 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문의: 2072-2070)

배우 하지원 출연료 기부
구순구개열 아동 치료로

영화배우 하지원 씨가 뮤직비디오 출연료 1천만원 전액을 모교 어린이병원에 기부했다.

지난 11월 16일 하지원 씨는 가수 이수영 씨의 스페셜 앨범 타이틀곡인 '꽃'의 뮤직비디오에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받은 개런티 전액을 구순구개열 환자들의 수술비



로 전달하고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수영 씨의 음CD 1백장을 선물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모교 병원 任廷基진료부원장(사진 右)은 하지원 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배를 증정했다.

하지원 씨는 모교 어린이병원추원회에서 저소득층·난치병 환자들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펼치고 있는 봉투펀드 캠페인에 참여해 병상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데 힘이 되고 있다.

평의원회 朴聖炫의장
부의장 胡文赫교수

모교 평의원회(의장 權道鉉)는 지난 11월 4일 평의원회스 교수 회관에서 제9기 평의원회 본회의를 통해 의장에 權道鉉과 朴聖炫(화학공학64-68·사진)교수, 부의장에 朴文赫(법학68-72)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두 교수는 2007년 10월 31일까지 임기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평의원 67명 중 48명이 참석했다.

음악대학

'2005 피아노 페스티벌'

음악대학(학장 申秀貞)은 지난 11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예술관에서 1백여 명의 교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 피아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음대 재학생들의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로 음대 발전을 위한 후원행사를 겸해 열렸다. 오전에는 동아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1등을 차지한 음대 재학생 崔佳孝준과 군과 2등을 기록한 성해린 양이 피아노 연주곡을 선사했다. 또 그동안 베토벤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논문은 쓴 모교 외대 曹珠鉉교수의 특강이 있었으며, 오전 시간에는 바자회를 겸해 참석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오후에는 실력 있는 20여 명의 음대 재학생들이 총 출연, 2인 1조가 돼 멋진 피아노 앙상블 연주

를 선보였다. 특히 이 행사를 위해 동문 및 교직원 가족 등이 장서와 여러 작품들을 기증했다.

한국문화연구소

'한류' 주제 학술 발표회

모교 한국문화연구소(소장 李泰鎮)는 지난 11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회회관에서 '한류 현상과 한국학-확산과 향상을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1박회를 맞은 이번 발표회에서 는 앞으로 학계가 근·현대의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서야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으로 '한류'라는 주제를 담게 됐다.

李泰鎮(국사학과 교수)소장은 "한류라는 주제가 연구소의 전통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한류 현상은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그 바깥으로 뿔어나가려는 기세"라고 진단했다.

이날 오전에는 일본·베트남·중국에서의 한류 현상의 추세와 특징 등이 발표됐으며, 오후에는 '거울연기'로 열린 세계와 단란 세계'라는 제목으로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대 소메이 도모유키(染谷智幸)교수 등이 발표를 했다.

모교 장학금 가장 많고
1인당 수혜액 규모도 커

모교가 국·공립대 중 장학금 규모가 가장 크고 1인당 수혜액도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모교에서 지급된 장학금 규모는 2백32억5천만원으로 2위인 경북대의 1백39억3천만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1인당 평균 장학금은 모교가 55만7천원으로 1위이며 한국제대 42만9천원, 인천대 41만8천원 순이었다. (李)

건강을 지키는 법

폐경 후 골다공증·심혈관 질환 '주의'

폐경기간 난소의 기능 상실로 오는 여성의 영위한 중단입니다. 1년간 월경이 없을 경우 진단가능하며 질방이 아닌 자연적인 생리학적 변화의 일종입니다. 폐경시기는 45~55세 사이로 매우 다양하며, 우리 나라 여성의 폐경 연령은 평균 48세로 보고됩니다.

폐경 직후의 증상으로는 많은 여성이 안면홍조와 식은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가슴 두근거림, 현기증 혹은 살신까지 나타나며, 심리적 변화로는 우울, 신경과민,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공격성, 긴장, 불면, 짜증, 의욕상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질과 요도의 위축으로 인해 질 건조감, 부부관계시 통증과 출혈, 빈번한 세균성 감염, 약제를 동반한 대하증, 빈뇨, 배뇨곤란, 요실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호르몬의 결핍은 폐경 후의 상용감염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용감염의 모든 원인은 아닙니다. 또 피부와 교원질이 소실돼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짐에 따라 노화가 가속되고 기러울 증과 타박상의 빈도가 증가하며, 근골격계의 통증이 수반됩니다.

질병으로는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 등이 있으며, 치매도 여성호르몬 결핍에 의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이해하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성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 뼈가 단단해지는 것에 비해 흡수되는 것이 급속히 증가해 골다공증이 잘 생기기며, 일단 한번 생기면 일상으로 치료할 수 없으므로 예방이 중요 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폐경 후 여성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폐경을 늦추는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없으나 여성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한 증세를 치료하는 호르몬 대체 요법이 있는데, 이는 초기 증상인 안면

홍조와 이에 수반되는 야근발한, 가슴 두근거림과 불면증 및 우울증 등의 정신적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근골격계, 비뇨생식기계 질환을 예방 치료하며 피부, 유방의 탄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더 여성호르몬 요법이 매우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에 따르는 불편감, 부작용이나 알발성



金珍珠

(의학93-99)

모교 병원 강남센터
신부인과 교수

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주저하거나 단기간 사용하다가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까지 유방암과의 관계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연구자마다 결과가 나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폐경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실천사항으로는 흡연을 피하고, 적절한 운동과 함께 든든한 골격을 위한 비타민D와 칼슘 섭취는 물론,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함유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적절한 휴식과 아픈 안면홍조를 개선시켜 줍니다. <원래> 2112-5637

사적 건강법

과년 명중 맨 잡념·스트레스 사라져

李 善 中(법학45-47)前법무부 장관·변호사

"사립의 건강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평소 필자의 소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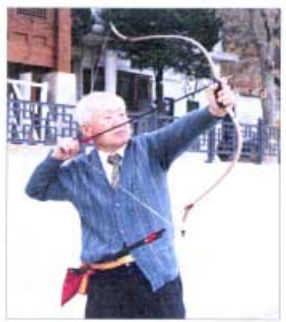
그러나 소나기시의 무리한 강행군만 과격한 운동보다는 매일 또는 일요일마다 규칙적이고 자신에게 알맞은 일정한 양의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더 건강유지의 길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평일에는 2시간 정도 완조기와 일요일에는 3~4시간 정도 가까운 산을 등산하고 있다. 때때로 그 나름대로의 건강 유지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우리 조상들은 먼 옛날부터 활쏘기에 능했던 모양이다. 중국이 봉안문화권의 중심부이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그들이 볼 때 동쪽 요강이라고 하여 동이(東夷)라고 불렀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큰 활을 잘 쏘았으므로 쏘자는 大弓을 딴 지라라고 한다.

우리 나라 활은 옛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을 것이나 근대에 와서는 각국이 보편적이게 됐다. 각국은 물론소활, 소활, 대나무, 뽕나무 등을 정교하게 꼴로 붙임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여름에는 힘이 약하고 겨울에는 강해져 우중이나 습기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침화(침화)라고 하여 온돌방 아랫목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집화실에 항상 보관해야 했다.

최근에는 우리 나라의 각광과 모양을 비슷하게 한 가발상이 나왔는데, 그 소재는 양궁의 소재를 사용하고 공장에서 대량생산해 값도 싸고, 온도의 차이나 우중사용에도 같은 강도를 유지하며 침화도 필요 없게 돼 간편해졌다.

필자는 1961년부터 우연한 기회에 국궁을 배우고 또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건강유지와 취미생활로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으나 정신집중과 정신신경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체의 중요는 상체를 움직이게 하고 활쏘는 사



림의 몸통의 움직임은 명중률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전신이 고정되어야하며 복식호흡이 이뤄져야 하고 활은 발사후에도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한다.

활쏘는 사람은 활과 화살을 가져야 하는데 활은 근대, 화살은 전통에 넣어두는 바, 전통에는 '反求諸己'라는 문구를 써 붙이거나 조각을 해서 소우맹으로 하고 있다. 반구재기는 오로지 스스로의 재능을 기다림으로써 스스로의 할 일에 충실함으로써 인생을 사는 동양의 군자의 태도, 이것을 항상 연두에 두라는 뜻이며, 인생의 재능을 '獨立自存'으로 지켜야 하는 뜻이라고 한다.

필자는 그동안 관주·대전·대구의 각 사정에 서 싸를 쏘다가 1965년 서울에 온 이후에는 사직공원 내에 있는 활화장에서 활을 쏘고 있다. 활화장은 시나중심인데도 수목이 울창하고, 공기가 또한 맑아 활쏘기에 적합하며 과녁에 명중하는 소리는 모든 잡념을 잊게 한다. 건강을 비롯해 기타 모든 인간 민사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로 얻어진다. 그 결과가 잘못도 잘못되는 것은 오로지 내 탓으로 알자는 반구재기의 정신,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커피의 항산화 작용

산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지나치게 많을 경우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산화작용을 일으켜 노화를 촉진한다. 활성 산소는 몸속에서 유산소가 대식세포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흡연은 유산소를 산화하는 경우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활성 산소를 조절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것은 항산화작용이라고 한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항산화작용을 가진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바로 이런 항산화작용을 가진 커피는 아주 유익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속에 함유되어 산화를 방지하여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은 폴리페놀화합물(polyphenols)이라고 한다. 녹차에 들어 있는 카테킨류(catechins),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클로로겐산, 말린나 가지, 포도, 감초, 밤, 사과 등 여러 가지의 인공식품에 대수 등은 모두 폴리페놀화합물이다. 이밖에도 폴리페놀화합물은 아몬드, 파인, 자두, 사과, 복숭아 등 여러 가지에 포함되어 있다. 최근 미국은 폴리페놀류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 기능이 심장 내에서도 항산화로 작용함으로써 건강유지와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커피도 폴리페놀화합물인데, 커피에 들어 있는 유익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커피가 제공하는 폴리페놀류는 폴리페놀류가 소화량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커피에 들어 있는 폴리페놀류는 커피를 마시는 작용을 한다.

2001년 미국 마이클 라이히(Myriam Richelle) 등이 J. Agricultural Food and Chemistry에 발표한 연구는 커피, 녹차, 홍차, 허브차 마시는 항산화력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 결과 커피가 가장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커피 원두는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ferulic acid, 그리고 Cinnamic acid 등의 다당류가 많은 양의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항산화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커피를 섭취할 때 원두 자체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커피의 항산화 작용에 대한 이익이 적기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위의 연구에서는 커피에 설탕과 우유를 함유했을 때 항산화 작용에 미치는 영향과도 병행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설탕이나 우유를 함유했을 때에도 커피의 항산화 작용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커피는 우리가 마시는 음료 중 가장 높은 항산화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량의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어 인해 내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낮은 칼로리 수치를 유지시켜 주는 커피의 항산화 작용은 우리의 체질을 더욱 풍부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고려해볼 만한 점도 있다. 우리 몸에 건강을 불어넣어 주는 많은 영양소들은 일일섭취량 초과 시 모두 해롭기 때문이다. 커피와 아몬드나 견과류를 섭취하여 그것을 즐기는 활동 모형을 적당량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이다. 이런 커피가 유익할 때 커피의 역할은 배가 될 것이다.

COFFEE & HEALTH



오원진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안전성평가센터장

등 정

수 상

▲**金世景**(경성제대39-45 고려대 명예교수)=지난 11월 17일 서울해마문화센터에서 열린 제57차 학술대회에서 공헌상 수상.

▲**李世中**(황성53-57 환경재단 이사장·문화 부회장)=지난 11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건넌선센터에서 제8회 효령대상(문화부문) 수상.

▲**金洛斗**(아화53-57 모교 아화과 명예교수·학술원 회원)=지난 11월 17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응신고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지탄스러운 용신인' 상 수상.

▲**李升煥**(황성55-59 前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송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인사)=최근 국제 가스 연맹(IGU)으로부터 공로패 수상.

▲**金承國**(심리56-60 단국대 교수)=지난 11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건넌선센터에서 제15회 천원교육상 수상.

▲**崔昌烈**(국어교육60급 전보대 명예교수)=지난 11월 23일 서울 용산사 강당에서 우리말의 어린이 연구에 힘쓴 공로로 제9회 동송학술상 공로상 수상.

▲**韓永福**(사화57-62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한림대 특임교수)=지난 10월 27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대회의실에서 제1회 한국언론진흥위원회로부터 2005년 간행물윤리상(저작상) 수상.

▲**趙東一**(불문58-62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계명대 석좌교수)=지난 12월 9일 부산 벡스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주)재

양 宋金熙희장이 만든 학술재단으로부터 제1회 耕齋학술상(인문사회부문) 수상.

▲**金芝河**(미화59-66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시인)=지난 12월 10일 서울 문학의 집에서 제10회 시와 시학상(작품상) 수상.

▲**洪孝吉**(외교61-65 한국항공대 총장·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난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25회 항공의 날 기념식에서 절협 산업훈장 수훈.

▲**柳祥津**(교육학61-65 모교 소비자동학부 교수·시인)=지난 11월 10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제20회 소셜시론 학상 특별상 수상.

▲**鄭東來**(미화63-67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지난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에서 농산물 수출 확대 및 한국 식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 농림수산식품성이 수여하는 글로벌 경영 최고경영자 대상 수상.

▲**李龍基**(국수공학64-69 포스코 회장)=지난 11월 16일 서울 조선호텔 오기드룸에서 한라제지협회의가 수여하는 제6회 배세나 대상 수상.

▲**任敦姬**(고고인류64-68 동국대 교수)=지난 11월 10일 부산 동부산CC에서 탁월한 학문적 성취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국 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로 제8회 일맥 학술대상 수상.

▲**咸基壽**(보내원67급 한서대 총장)=지난 10월 27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철학인사 창립 1백주년 기념식에서 국한문전 석류장 수훈.

▲**朴在甲**(의화57-73 국립암센터 원장)=최근 폴란드 금연운동단체인 간담중진재단(HFP)으로부터 세계금연지도상 수상.

▲**金泰謙**(신대원68-77 한림사 대표)=지난 11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건넌선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국출판문화대사상 시상식에서 일반도서 기획·편집상 수상.

▲**魚 進**(섬유공학68-72 DNI코퍼레이션 대표)=지난 11월 8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섬유와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표창 수상.

▲**李秉基**(전자공학70-74 모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지난 12월 9일 부산 벡스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주)태양 宋金熙희장이 만든 학술재단으로부터 제1회 耕齋학술상(공학부문) 수상.

▲**趙南遠**(화학공학73-77 국립중앙과학관장)=지난 11월 22일 한·프랑스 원자력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ژ 드뇌르(Legion d'Honneur)훈장 수훈.

▲**安奎里**(의화74-80 모교 내과학교수)=지난 10월 26일 서울 정선여고 대강당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수여하는 제20회 올해의 여성상 수상.

▲**任太熙**(경영76-80 국회의원)=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白梅 羅啓均선생기념사업회로부터 제7회 백봉선사상 수상.

▲**金奎熙**(법학76-85 윤진정리브 대표)=지난 11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건넌선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국출판문화대사상 시상식에서 대형기획물 저술상 수상.

▲**黃祥熙**(AMP 11기 다스텍 회장)=지난 10월 19일 서울 라마다르비나스호텔에서 열린 '산업기술인의 밤' 행사에서 금탑 신

업훈장 수훈.

▲**李完根**(AMP 27기 신성ENG 회장)=지난 10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린 2005 한국국제산업대전 개막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趙亮瑞**(AMP 29기 대한항공 회장)=지난 10월 26일 미국 남캘리포니아대(USC)의 아시아 금융경영대학으로부터 글로벌 경영자상 수상. 또 2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5회 항공의 날 기념식에서 국한문전 모란장 수훈.

바리톤 공병우 등문

오페라 '돈 조반니' 주역 맡아



노르웨이 일간지에 소개된 공병우 등문(가운데)의 공연 장면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바리톤 공병우(성악93-97)등문이 지난 9월부터 노르웨이 크리스티안센드시의 오페라 극장에서 5회에 걸쳐 공연된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의 주역으로 출연,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노르웨이의 한 일간지는 출연진들의 합창 장면 등을 사진으로 싣고 공병우 등문의 다양한 표정 연기와 풍부한 성량의 노래가 대단했다고 보도했다. 노르웨이 일간지에 등장한 성악가가 문화면에 사진과 머리가사로 소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공병우 등문은 모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 국립오페라학교를 전역 장학생으로 다녔으며, 2000년 프랑스 퐁루즈 국제콩쿠르와 2002년 프랑스 마르몽트 국제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공병우 등문은 모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 국립오페라학교를 전역 장학생으로 다녔으며, 2000년 프랑스 퐁루즈 국제콩쿠르와 2002년 프랑스 마르몽트 국제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인 사

▲**李平宇**(불문48-56 세이제강교 총장상임)=지난 10월 28일 경남 통영 마리아스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유네스코협회 연맹 전국대회에서 임기 4년의 회장에 선출.

▲**李信子**(응문비50-55 前대 문화회장·우덕문화원장·예술원 회원)=최근 대한미술협회 예술인대신분과로직에 선임.

▲**俞秉書**(잠사화66-60 한국단미사협회 회장·수원지부총회장)=지난 11월 24일 임기 2년의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에 선임.

▲**孫京植**(법학57-61 CJ그룹 회장·문화 부회장)=지난 11월 22일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 또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임시 의원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朴容熙**(의화62-68 모교 의과학교수)=지난 11월 14일 부산시립대병원에서 열린 임기 4년의 대법원 대법관에 취임.

▲**金秉福**(법학67-71 법원행정처 차장)=지난 11월 16일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2011년까지 6년 임기의 대법원 대법관에 취임.

▲**郭秉福**(신대원69-71 前민주통통 광진구의회 의장·사무총장·통일교육원 교육위원)=지난 11월 2일 한국통일문화진흥회 한국통일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취임.

▲**朴時煥**(법학72-76 법학사)=지난 11월 16일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2011년까지 6년 임기의 대법원 대법관에 취임.

▲**朴仁福**(국어교육50-54 모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문화와 문학교육연구소장)=지난 11월 18일 서울 코리나호텔에서 '윤당 구인환 문학전집(27권)' 출판기념회 개최.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가천길재단 회장·가천문화재단 이사장·분회 부회장)=최근 인천시 구월동 가천의과 길병원 기전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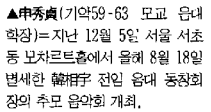
▲鄭宗澤(행정54-58 충청대학 학장·분회 부회장)=지난 11월 29일 전국대학동창회상무자협의회 정기모임에서 '대학(고등교육)의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



▲姜信杓(사회55-59 인제대 명예교수)=지난 11월 23일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대학, 학문, 학풍의 전통 수업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문화인류학과 兩特강좌 1백회 기념 강연 개최.



▲金新顯(회화58-62 한국미협·홍문화·58동문화·전업작가협회 회원)=오는 1월 18~23일 일본 도쿄 Eizo갤러리에서 일곱 번째 개인전 개최 예정.



▲申秀吉(기약59-63 모교 음대 학장)=지난 12월 5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에서 올해 8월 18일 별세한 韓祥宇 전임 음대 동창회장의 추모 음악회 개최.



▲朴榮敏(체육교육62-66 고려대 교수·전국골프 연합회장)=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주·천행·레이크힐스·스카이72 골프장에서 사랑의 나이스트 행사를 개최해 모금한 1천만 원을 지난 11월 11일 재단법인 스마일(이사장 朴昌潤)에 회시.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11월 8~14일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 수원미술관 제3 전시실에서 '예술·문화를 담는 그릇'을 주제로 잡지창간호 소장전 개최.



▲楊興準(화학공학65-69 LG생명과학 사장)=지난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진경원 회관에서 열린 제3차 바이오 경영자 포럼 세미나에서 '국내 바이오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金海澤(경리원68-70 대평동산 회장·양천장학회 이사장)=지난 11월 12일 서울 송동동 롯데호텔 사파이어홀에서 20주년 기념식 겸 이사장 金海澤 개최.



▲申義享(잠사학69-75 금산은행 대표)=지난 11월 16일 서울 삼성동 섬유회관에서 캐시미어의 대중화를 위해 '2006-2007 FW캐시미어 컬렉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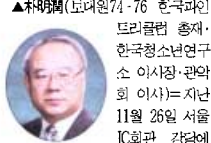


▲金仁圭(정치69-73 KBS 이사·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좌교수·본보 논설위원)=지난 12월 7일 서울 한국언론재단내서네폐레스클럽에서 '방송인 김인규의 생애방송 특강' 출판기념회 개최.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제1회 정기오페라 '마술피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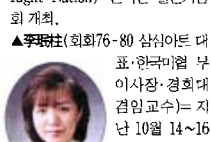
▲閔奎憲(국악73-77 공주교대 교수·대전충남 가아름 연주단 '형·음' 대표)=지난 11월 16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제11회 청흥의 밤 가아름연주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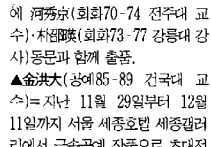
▲朴明潤(도대원74-76 한국과인드림클럽 총재·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관악회 이사)=지난 11월 26일 서울 JC회관 강당에서 클럽 창립 47주년 기념식과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전달식 개최.



▲朴振(법학74-78 국회의원)=지난 11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18kg 체중감량 성공담을 담은 '박진감 있는 몸' 고대 다이어트와 '우악가(The Right Nation)' 번역기념 출판기념회 개최.



▲李瑞柱(회화76-80 삼삼아트 대표·한국미협 부이사장·경희대 겸임교수)=지난 10월 14~16일 스위스 취리히 국제아트페어에 河秀京(회화70-74 전주대 교수)·朴邵瑛(회화73-77 강릉대 강사)동문과 함께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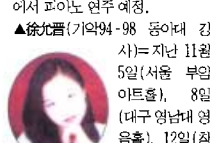


▲金洪大(공예85-89 건국대 교수)=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 세종로호텔 세종갤러리에서 금속공예 작품으로 초대전 개최.

트윈스트림에서 베토벤, 브람스, 프랑크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첫 독주회 개최.



▲李承憲(작곡92-96 캐나다 Leth Bridge교수)=오는 1월 6일 서울 여의도영산그레이트홀에서 열리는 금요초점음악회에서 피아노 연주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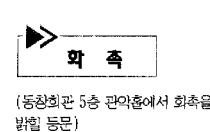
▲徐光晈(기약94-98 동아대 강사)=지난 11월 5일(서울 부암아트홀), 8일(대구 영남대 영음홀), 12일(창원 상산아트홀 소극장) 피아노 독주회를 연다 하 이든, 리하미노노, 피아 등의 작품을 선보일.

▲崔烈坤(ACAD 6기 한국교육상라회총연합회장)=지난 11월 15

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제4회 한국수도대상 및 제2회 삼라봉사상 시상식 개최.



▲朴永享(ACAD 43기 현대시멘트 상임감사)=최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9차 감사인 대회의 종합보통회(주제: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에 상정법인으로 대표해 참석.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회측을 밝힐 등문)

■김현수(국민윤리교육91-96)·조희진 씨=12월 17일 12시 30분.

■김현욱(공법89-95)·오연 씨=12월 24일 12시 30분.

1 명목을 뽐니다

李大源 前예술원 회장



홍익대 총장과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지낸 원로 서양화가李大源(경성제대45졸) 화백이 지난 11월 20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경기 과지에서 태어나 어린 적부터 그림 그리기에 재주를 보인 고인은 1971년 국내 최초의 상업화랑인 빈도화랑을 세우고 1회 개인전을 열었다. 1967~1986년 홍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초대 미술대학장, 총장을 역임했다. 1989년과 1993년 두 차례 예술원 회장을 지냈고 1995년 미술의 해 조직위원장을 맡은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孫珠璣 前법학박회장



한국심사법학회장과 한국항공법학회장을 지낸 孫珠璣(행정 47-52) 대한민국의학원 회원이 지난 11월 20일 수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경북 경주 출신인 고인은 모교를 졸업하고 중앙대 법대 교수를 거쳐 1989년까지 연세대 법대 교수 및 학장을 지냈다. 한국법학회 회장 등 각종 학회장을 맡았던 고인은 '상법개설'을 비롯한 30여 권의 저술과 5백여 편의 논문을 남겼으며, 법률문화상(1981년)과 국민훈장 모란장(1983년)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종순씨와 3남1녀가 있다.

동문 기고

‘국민 다수의 현재 정서’와 ‘국민 다수의 미래 행복’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국립서울대 총장이 교육정책의 근간을 둘러싸고 현저한 인식차이를 드러내고 있다.盧대통령이 ‘학습세습’을 경계하면서 중·고교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鄭총장은 ‘수월성 영재성 살리기 교육’에 더 중점을 둔다. 정치인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접근이 국민 다수의 현재 정서를 크게 고려한 것이 라면, 총장은 국민 다수의 미래 행복을 겨냥한 소수의 경쟁력 제고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동문까지도 모교를 비방하다니”

어느 일간신문의 데스크 칼럼의 결론부분을 요약·인용한 글이다. 예리하면서도 지혜로운 분석이라는 생각에서다.

발자가 이 칼럼을 읽기 전까지는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서울대와 서울대인을 ‘공교육의 적’이요, 자·자’ 대도 모자라 자식 대까지 최고 엘리트 계층이 되었다고 벽을 쌓는 ‘천하의 이기주의자’처럼 매도 되는 것에 무척이나 속이 상했었다. 비록 정치인이지만 동문까지 나서서 서울대가 비방하느냐, 자성과 양식이 있는가 없느냐 비방을 하고 나서는데 어이가 없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서울대와 서울대인을 비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결소 애교심이나 동창의식이 거의 없던 필자도 두척이나 속이 상했었다.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통합교육형 논술’ 시험을 보게 되면 과외열풍이 다시 불어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는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과외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서울대에 가기 위해 과외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그들은 단지 조금 모자라는 성적을 올려서 자기가 바라는 학교에 가기 위해 과외를 하고 있을 뿐이란 생각이다.

과외공부를 해야만 서울대에 갈 수 있는 학생은 ‘서울대 커트라인’ 전후에 있는 일부 학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서울대 지망생 전부를 다 합쳐도 1만명도 되지 않는데, 서울대가 논술시험을 보면 과외열풍이 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학습세습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 아닌지?

‘어려운’ 논술시험을 치게 되면 서울대를 시험하는 학생들 중 탁월한 학생을 빼내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술과의’를 받아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시험이 어려워지는 만큼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줄어들고, 서울대에 가기 위해 과외를 하는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게 아닌지? 오히려 서울대가 재능 있는 학생을 구분하지 못하면, 너도나도 서울대에 가겠다고 하는 붐에 더 많은 학생들이 과외공부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

대학서열화만 해도 그렇다. 획일적인 수능시험과 그 점수에 따른 대학입학이 오히려 서열화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학교마다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준과 과목이 다르고, 추구하는 분야가 다르다면 비교가 불가능해지고, 서열화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실력 아닌 ‘간판과 패거리’로 출세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

0.1%의 영재를 뽑겠다는 것이 서울대의 이기주의라는 주장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0.1%에 속하는 영재가 차별화되지 않은 시험 때문에 서울대에 못 들어가고, 그보다 훨씬 못한 10%에 속하는 학생은 들어가지게 됐을 때, 이것을 ‘기회균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서울대에 들어오길 희망하는 영재를 서울대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서울대를 위한 것인지, 영재를 위한 것인지의 구분하지 않은가.

“0.1%에 속하는 영재는 어느 학교에 가

더라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는 주장도 기가 막히는 예이다. 답사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열재들을 다 데려가서 서울대가 제대로 가르쳤나 하는 문제는 별개이다.



李 憲 穆

(농학계64-68)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정책연구소장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민간에도 너무 많다는 비난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실력이 아니라 ‘간판과 패거리’ 때문에 출세를 했다는 예이다. 민간회사의 사장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단지 그 사람이 서울대 나왔다고 뽑을까? 임원으로 승진시킬 때, 단지 서울대 나왔다고 승진시킬까? 정부와 공공부문에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대 출신은 선배·후배라고 봐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단과대학 선후배간의 유대도 다른 대학의 총동창회 선후배간 유대보다 약하면 안됐지 강하지 않다. 서울대 출신이 많다는 것은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이 결과도 서울대 출신의 입장에서만 공평했는지 의문을 가릴 수도 있다). 많은 대학들이 선후배간에 스스로들이 지내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을 보면

서도 서울대 출신들의 약한 동창의식이 나라 전체에는 득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 서울대와 서울대인은 ‘외로운’ 항변을 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스스로의 명예를 걸고 대학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국민 다수는 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 할 것 같다. 동시에 “나는 일반국민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라는 질문도 해보아 할 것 같다.

필자도 ‘고시에 합격한 서울대인’의 뜻밖인 자세로 ‘나라와 농업의 발전’을 위해 사심도, 후회도 없이 일했다고 자부했다. 이제 농간단체의 연구소장이 되어 내가 해온 농정(지금의 농정도 같은 흐름이지만)을 비바람 때, 진성 농민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농정을 했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최선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신할 수도 없다. 비록 저름감이 아니라라도 상대방과 함께 가는 길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모교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인 정서가 생기도록 노력해야”

서울대와 서울대인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의 비난을 근거 없고, 불합리하다하여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것은 엄연히 ‘다수 국민의 현재 정서’이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의 현재 정서’를 거슬러서는 아무 것도 이루어 수 없는 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냐.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서울대인이 지향하는 ‘다수 국민의 미래 행복’도 ‘다수 국민의 현재 정서’를 무시하고는 이루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물론 정치인들도 ‘다수 국민의 현재 정서’에 무조건 연합하기보다는 ‘다수 국민의 미래 행복’을 위해 설득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대와 서울대인들도 ‘다수 국민의 현재 정서’ 속에 ‘다수 국민의 미래 행복’을 증시하는 ‘원리적인 정서’가 생기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추억의 창

申 允 植 (사원55·59) 前하너로통신 회장·한국유비쿼터스농촌포럼 공동대표

국사개론 'F'학점 맞고 학자의 길 포기

데이트신청 위해 여학생 시험노트 빌려

어려서부터 국사공부를 매우 좋아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 나라에서 출판된 국사개론 책은 모두 다 읽었을 정도였다. 특히, 李濟(李濟)교수님께서 쓰신 '국사개론'은 한문이 많아 한자 욕망을 찾아보면서 30년도 더 읽었다. 나날대로 역사에 대한 취미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토인비와 같은 석학이 돼보겠다는 건방진 야망과 함께 모교 사학과에 입학했지만 이러한 꿈들은 1년이 채 못 돼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입학 후 1년간 교양과정은 사회학과와 사학과 학생들이 함께 들었는데 영어 첫 시간에 朴正熙(朴正熙)님은 영어 수필을 큰소리로 읽으셨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손들이 보라고 하셨다. 아무도 손을 들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만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불니 사회학과 金鍾憲(金鍾憲)씨가 설명을 했고, 여학생 중에는 사학과 李仁浩(李仁浩)씨가 대답한 것으로 기억된다. 교수님은 서육대생이래면 당당하네 이 정도는 알아들



고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짐작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첫 시간부터 기가 죽기 시작했다.

그러나 필자에게도 자신 있는 과목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朴正熙(朴正熙)교수님의 '국사개론' 강의였다. 첫 강의를 들어보니 '국사개론'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말하셨다. 이미 '국사개론'을 30년도 더 읽어서 내용을 꿰뚫고 있던 터라 나는 슬그머니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 국사개론 강의를

들은 것은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것이다. 그 이후로 1학기 동안 한번도 李濟(李濟)교수님의 국사개론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를 치렀다.

뜻밖에도 국사개론에서 'F'학점이 나왔다. 지금 생각해도 국사개론 'F'학점은 불



1956년 10월 문리과 대학 운동장에서 열린 개교 10주년 기념식 (左) 원배 필자

가시의 한 잎이나 속으로 찔러하기도 하고 감히 朴正熙(朴正熙)교수님께 여쭙볼 용기가 없었다. 강의를 안 들은 죄가 분명히 있었으니 ... 'F'학점 사건은 입학처장마저 초라한 자기 존중을 인식하면서 결국 학자의 길을 포기하게 만든 첫 번째 요인이 됐다.

'대학신문'에 李濟(李濟)교수님의 '학자가 되는 길'이라는 요지의 글이 실렸다. 거기서 교수님은 학자가 되는데 있어 필수적인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건강이 충

아야 하며, 둘째 심안에는 평생 돈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경제력이 있어야 하며, 셋째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 좋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 중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도 나쁘고 돈도 없는 데다 평범한 천부였다. 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고시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필자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됐다.

필자에게 대학시절은 낭만과 추억을 만들기에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급박했다. 비록 이런 와중이었지만 필자에게도 즐거운 기억이 생각난다.

우리 과에는 4명의 여학생이 있었다. 이 분들을 워낙 공부를 잘한 관계로 나는 주눅이 들었고, 그녀들의 노트를 빌려 기말시험 준비 하기에 답답했다. 그 중 가장 예뻐했던 한 여학생에게 차마 한 장 안하고 영하나 한 권 같이 보자고 말하기 위해 몇 번이나 머리가 굴렀는데 결국엔 "노는 잘 해야요"라고 자신 있게 돌려주어 말았던, 가슴 두근거려던 추억이 남아 있다. 교수님 성공한 朴奎玉(朴奎玉)·李仁浩(李仁浩)씨, 가정주부로 성공한 金貞華(金貞華)·金鍾憲(金鍾憲)씨는 이제 모두 70세가 다 됐다. 다음에 후 만발 기회가 있다면 호프집에서 생맥주 한 잔 하시고 프러포즈를 생각이다.

신 간

한국 현대도시소설과 비교문학

—田惠子 著



61·65)교수의 연구논문을 엮은 것.

제1부에는 '도시소설연구'라는 타이틀 아래 필자가 초창기 한국 현대소설의 배경연구 과정에서 관심을 갖게 된 도시소설 또는 도시성애에 관한 연구가 집중해 있다. 2부에는 필자가 늘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던 비교문학에 관련된 논문들이 수록돼 있다. 한국문학사에서 외국의 문학과 수용과정에 따른 영향연구, 이질, 유사성과 차이성에 의한 대비연구 등이 주요 맥락으로 자리하고 있다. (국학자료원·새마을·값18,000원)

비단길 보고서

—문리대 산악회

서울대 문리과대학 산악회 창립 50주년 기념 탐사 리포트. 중국 간쑤성에 있는 둔황과 신장성 타



제1장 '탐사 준비'부분은 여행 준비 과정과 여행한 지역 및 그 지역 역사에 대한 소개를, 제2장 '비단길로 떠나자'에서는 2004년 7월 18일 출발 이후 매일 보고 들은 겪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제3장 '탐사 보고'는 여행 출발 전 분담했던 주제들을 미리 공부한 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한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 으로 여행을 준비하면서 읽은 참고 문헌들과 의원 보고,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한 여행 일지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수유산房·중심사·값18,500원)

헌법정치 60년과

김철수 헌법학

—金孝全 著



는 단어로 요약되는 험난한 시대를 체험한 韓濤 金哲洙(법학52·

클라마칸 사과와 주변의 주요 지역을 탐사하는 노정을 여행 사진과 스케치와 함께 담았다.

한국의 헌법정치 60년을 회고하고 헌법학의 발전추세를 추적하려면 무엇보다 金哲洙(金哲洙)교수의 헌법학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 헌법학자의 연구업적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정찰된 우리의 현대 헌법정치사에 대한 생생한 증언인 동시에 그의 예리한 현실진단과 미래에 대한 방향제시까지 포함한 점에서 더욱 그의 학문의 의의와 가치가 발견되는 것이다. (학형사·값48,000원)

불쌍한 CEO들의

달걀 세우기

—崔榮益 著



변치기업 전문 변호사 인崔榮益(사법82·86 법무법인 유인 이비치대 대표 변호사)등

이들이 변치기업의 법률 자문을 해주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책으로 묶어냈다.崔榮益은 이 책에서 변치기업은 기업이 정의와 보고이자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시험장이라는 것만으로도 육성해야 할 가치가 충

공연

李碩堧 호른독주회

12월 22일 예술의 전당

KBS교향악단 수석단원인 李碩堧(1940·95)봉문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호른 독주회를 열어 파스칼, 메르카타네, 키르히너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독일 에센 콩크라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李碩堧은 현재 TIMF 앙상블, 계주인양앙상블, 그로,



한국패스티발앙상블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공연 문의: 여인어술기획 586-0945)

본한다고 말한다.

누가 사인 것도 아는데 스스로 긴장을 만들어내고 미지와 불확실성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가들이 많은, 그리고 이런 모험가들의 성공과 실패를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여권이 갖춰져 있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우이슈·값12,000원)

12년차 기획맨의

기획 실무 노트

—趙徹著 지음

광이제로 삼동기획 담당에서부터 교보문고 기획실장까지 12년간의 다양한 기획 경험을 가진 趙徹(출생1967·82 이안인컴에서 대표부문의 경영 기획 노하루를



담은 책.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분석하고, 환경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전략을 도출하는 전문적인 기획 기법을 설명하고, 두 번째로 그 기획 기법을 활용에 기획서를 작성하는 사례를 담았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획으로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기획자가 해야 할 일들을 소개했다. (이안인컴·값19,500원)

△강경희(강) △강경호(강) △강봉천(강)
△강건희(강) △강태민(강) △강기욱(강)
△강진 훈(강) △강기정(강) △강금영(강)
△강영익(강) △강영진(강) △강남영(강)
△강오수(강) △강우대(강) △강금운(강)
△강민용(강) △강민준(강) △강재환(강)
△강민주(강) △강주국(강) △강원현(강)
△강규호(강) △강홍현(강) △나종운(강)
△류규진(강) △류근서(강) △류동근(강)
△문대성(강) △문해성(강) △박병근(강)
△박영림(강) △박용우(강) △박인제(강)
△박유진(강) △박현서(강) △박재우(강)
△배유재(강) △서희정(강) △서원익(강)
△서원진(강) △손준수(강) △송규신(강)
△송해원(강) △신동훈(강) △신성호(강)
△신연호(강) △신태대(강) △오영수(강)
△오진우(강) △오영진(강) △오현구(강)
△오형관(강) △유인원(강) △유광현(강)
△유달신(강) △유동철(강) △유인식(강)
△유수현(강) △유호선(강) △윤병철(강)
△이근식(강) △이민수(강) △이상국(강)
△이성철(강) △이석수(강) △이성준(강)
△이성철(강) △이수영(강) △이인재(강)
△이재래(강) △이재홍(강) △이주영(강)
△이진수(강) △이철우(강) △이준식(강)
△이혜진(강) △이희우(강) △정효철(강)
△정수영(강) △정원익(강) △정재태(강)
△조성래(강) △조남규(강) △조성수(강)
△조세현(강) △조신형(강) △진 철하(강)
△진중수(강) △조신원(강) △한재현(강)
△최병남(강) △최병태(강) △최신식(강)
△최태영(강)

◆사대 △강태관(강) △강성철(강)
△고서근(강) △고인수(강) △고봉수(강)
△권경현(강) △강성웅(강) △권오준(강)
△권택훈(강) △김두대(강) △김우정(강)
△김평훈(강) △김범기(강) △김시영(강)
△김성태(강) △김세영(강) △김수만(강)
△김문재(강) △김용수(강) △김우승(강)
△김우재(강) △김위수(강) △김지현(강)
△김종수(강) △김종옥(강) △김종환(강)
△김정현(강) △김주현(강) △김지희(강)
△김진영(강) △김태환(강) △김민규(강)
△김예성(강) △김혜정(강) △김홍대(강)
△류성진(강) △신상술(강) △노저영(강)
△남창식(강) △명대현(강) △박근환(강)
△박익우(강) △박용수(강) △박지용(강)
△박지현(강) △박승준(강) △배우진(강)
△서정기(강) △서수희(강) △서영범(강)

지인92
혜인64

◆법대 △강도원(88) △강일원(78) △최정숙(57) △최종근(48) △최지순(63)

①관공(關公) ②나문(羅文) ③나문(羅文) ④
 ⑤분신수육(分身肉) ⑥민공(民公) ⑦민공수(民公首)
 ⑧민수(民水) ⑨민수(民水) ⑩민수(民水)
 ⑪민수(民水) ⑫민수(民水) ⑬민수(民水)
 ⑭민수(民水) ⑮민수(民水) ⑯민수(民水)
 ⑰민수(民水) ⑱민수(民水) ⑲민수(民水)
 ⑳민수(民水) ㉑민수(民水) ㉒민수(民水)
 ㉓민수(民水) ㉔민수(民水) ㉕민수(民水)
 ㉖민수(民水) ㉗민수(民水) ㉘민수(民水)
 ㉙민수(民水) ㉚민수(民水) ㉛민수(民水)
 ㉜민수(民水) ㉝민수(民水) ㉞민수(民水)
 ㉟민수(民水) ㊱민수(民水) ㊲민수(民水)
 ㊳민수(民水) ㊴민수(民水) ㊵민수(民水)
 ㊶민수(民水) ㊷민수(民水) ㊸민수(民水)
 ㊹민수(民水) ㊺민수(民水) ㊻민수(民水)
 ㊼민수(民水) ㊽민수(民水) ㊾민수(民水)
 ㊿민수(民水)

9·10월계 : 45,740,833원
 공생희비 : 86,394,400원
 입 호 비 : 1,880,000원
 총 계 : 1,159,696,707원